



봄나

4월호

춘천시 시정소식지

Contents



2024년 4월호 APRIL 2024

표지 설명

2023년 4월, 공지천 벚꽃 산책길
사진 이수환



- bomnae.chuncheon.go.kr
- chuncheon.e
- chuncheonsi
- chuncheon_go

- 4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 6 **춘천은 지금**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 10 춘천시동물보호센터
- 14 **봄내 인터뷰** 첼리스트 홍진호
- 18 **춘천은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 춘천
- 20 기업혁신파크 선정
- 22 **시정뉴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춘천 지정 외
- 24 **봄내한컷** 새로운 봄날 공지천 외 4건



6

근화동396 스토어

봄내 399호 2024년 4월호 비매품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인 춘천시 부시장
총괄·운영 춘천시 소통담당관 기획·취재 한수지, 한혜진 디자인 임윤선 인쇄 대성문화출판사 문의 ☎250-3229

26 BOMNAE CULTURE 이달의 문화생활 소개

32 EDITOR'S PICK 이달의 책 소개

33 우리가족이야기 이효정 님 이야기 외 5건

34 봄술랭가이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춘천

36 도란도란 클라이밍 동호회 무아지경 외

40 최돈선의 둘레마을 이야기 비술나무 아래 메주가 뜰 때

44 앉아서 세계속으로 오감이 즐거운 여행, 타이베이



36

클라이밍을 즐기는 시민들

46 교실에서 보낸 편지 달팽이 선생님

48 의회소식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51 봄내골소식 춘천시 미담 사례 소개

53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82호

54 알림마당 생활정보, 행사안내 등

62 독자와 함께

63 만화로 보는 봄내 리뷰 강원애니고 2학년 박희원



시정소식지 '봄내' 우편 구독 신청

읍·면지역은 봄내편집실(250-3229)로 구독 신청, 동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세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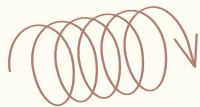


Q.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하루 중 밥 먹을 때랑 태권도 할 때가 가장 좋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해요. 이 음식들을 먹을 때면 도파민이 폭발해요. 그리고 태권도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흠뻑 흘릴 만큼 힘들지만, 기분이 짜릿하고 오히려 웃음이 나오. 힘들 때 웃으면 괜찮아지거든요. 품새 1장부터 태백까지 어려운 걸 끝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태권도를 배운 지 7년 됐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차리고 싶습니다.

김하은 14세·석사동



'가오니의 메뉴판'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 보는 걸 좋아합니다. 먹방 유튜버의 영상들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알게 된 채널인데요. 처음 이 채널을 보기 시작했을 땐 대리만족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음식이 자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오니라는 유튜버가 음식에 진심이고 굉장히 잘 먹어요. 성격이 밝아서 음식을 먹으며 까르르 웃는 걸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긍정 기운을 받고 싶다면 봄내소식지 구독자 여러분도 한 번 찾아보세요!

조지현 31세·요선동

변애리 40세·석사동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주차장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좋아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은 앞 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면서 소란스럽게 지나갔던 하루를 차분하게 곱씹어 봐요. 집에서는 온전한 휴식을 하고 싶어서 가급적 차 안에서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가장 운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은 주차를 마친 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예요. 최유리의 숲이나 자우림의 사이닝이 나오는 날은 최고의 하루로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홍기순 65세·후평동

공지천을 산책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고 소중한데요. 매일 오전 친구랑 만 보씩 걷고 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6개월째 걷고 있어요. 공지천에서 시작해 옛 중도 배터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티비에서 70대 어르신이 매일 한 시간씩 바닷가를 걷는 걸 보고 시작했답니다. 제가 혈압약을 먹었는데 걷기 시작하고 혈압이 떨어져서 이젠 약을 안 먹어요. 지구력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어요. 산책은 지금 제 삶의 낙이랍니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 요즘, 메뉴판을 정독하는 시간이 좋아요. 식당이나 카페의 메뉴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좋습니다. 모든 메뉴를 하나씩 읽어보고 어떤 모양과 맛일지 상상할 때 묘한 만족감과 설렘을 경험합니다. 물론, 대부분 메뉴판 맨 위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메뉴(아메리카노, 야채김밥 등)를 고르지만 말입니다. 메뉴판을 하나씩 살펴보며 상상하는 이 시간은 짧지만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 아내와 같이 드라마 보는 시간입니다.



나경수 37세·우두동

김현숙 51세·석사동

석사동 집에서부터 석사천~공지천~소양로 강변쪽으로 왕복 26km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 4일 목표로 한겨울에도 눈만 오지않으면 영하 19도의 날씨에도 알싸한 추위와 동행하며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은 자전거와 함께 친구가 되어 떠나는 자전거 퇴근 여행입니다. 소양로 일몰을 마주하며 달리는 시간은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여서 퇴근 시간이 점점 여유로워지고 자연이주는 고마운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자전거 출퇴근은 짜릿한 유희의 시간이라 멈출 수가 없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공지천 사거리, 열차가 다니는 다리 밑 흰 컨테이너들이 마치 레고처럼 가지런히 쌓여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곳의 정체를 모르는 춘천시민을 위해 준비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창작자들로 가득한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소개서.

글 한혜진 사진 이경하, 근화동396 제공



르사봉 Le Savon

프랑스말로 비누를 뜻하는 르사봉은 자연주의 원료를 이용해 천연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 0507-1336-9796

버거핀 BURGERPIN

버거핀은 햄버거 속 다양한 토핑의 조화의 매력처럼 사랑스럽고 개성 넘치는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다. 생활 소품, 패션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

☎ 0507-1332-3901



☆ 너티퍼피 nuttypuppy

사랑스러운 캐릭터 '너티', '비비'와 친구들이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팬시, 문구, 굿즈를 만든다. 니트 북커버도 제작한다.

🌐 smartstore.naver.com/nuttypuppy



연 작업실

마크라메, 라탄,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를 만드는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인테리어 소품과 재료를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이고 있다.

☎ 0507-1487-0625



풀가 Fullga

풀가는 동물, 자연을 주제로 일러스트 문구와 생활 소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전국 아트박스 매장에서 풀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instagram.com/fullga_



메이슈 Meishu

강낭콩과 팥을 이용해 '오늘도 고생한 나를 위한 디저트' 화과자를 만드는 공방. 취미, 자격증, 창업 등 수준별 수업을 운영한다.

☎010-7758-2782



하시오하우스 HASIOHAUS

추억과 용기를 선물하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로 티셔츠와 밀크글라스, 일회용 필름카메라가 주요 아이템이다.

🌐 [instagram.com/hasio.haus](https://www.instagram.com/hasio.haus)



오월공간

레진(모형 제작에 활용하는 합성수지의 액체 상태)을 고체로 굳혀 제작하는 공예를 이용해 자신만의 개성에 맞게 소품을 만들어보는 수업 위주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0507-1316-8895



오오티오 O.O.T.O

오오티오는 'Out of the office'를 의미하며 사무실 밖, 일상 속 감감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브랜드다. 친환경 씨앗키트 등을 판매한다.

🌐 [ooto-shop.kr](https://www.ooto-shop.kr)



몽글리 monglee

천연비누&제스모나이트(친환경 수성 아크릴레진) 공방. 클래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른부터 아이까지 나만의 색깔, 향기를 담은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 [instagram.com/monglee_official](https://www.instagram.com/monglee_official)



요거참 YOGUR CHARM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그릭요거트를 판매한다. 감자, 고구마, 복숭아, 민트초코 등 다양한 요거트를 만들고 있다.

☎0507-1320-3968



로이스 사진공방

LOIS PHOTO atelier

전문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사진 공방.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상품 촬영 및 보정 수업부터 어린이 맞춤 카메라 수업까지 가능하다.

☎0507-1440-4774



고프빌리 gorp ville

여행의 설렘을 오롯이 담아 캠핑, 백패킹 등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의류를 만든다.

🌐 [gorpvillemweb.me](https://www.gorpvillemweb.me)



근화동396을 거쳐 간 창업팀,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팀의 상품을 맛보기로 보여드려요. 관심이 생겼다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마켓에 방문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화동396 외관



소양강댐에 위치한 카페 '다목적 소양'



근화동396이 궁금해

2019년 11월 문을 연 근화동396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다. 다양한 자원과 그 자원의 특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브랜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세부터 40세까지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입주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약 470㎡ 규모에 창업공간 17동, 공용공간 7동으로 구성돼 있다. 춘천시 근화동 396번지 일원에 위치해 공간 이름을 '근화동 396'으로 지었으며, 춘천시 청년발전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 운영하고 있다. 1기(2020~2021년), 2기(2022~2023년)는 졸업(지원 종료)해 나갔고 현재는 3기 창업팀 15팀이 상주하고 있다. 또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1년 소양강댐 물 문화관에 위치한 유희공간을 활용해 카페 '다목적 소양'을 만들었다. 이곳은 카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 1년간 운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오면 반드시 성장한다!

입주팀은 약 4.5평의 컨테이너형 창업공간 한 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또 창업지원금 450만 원과 창업 과정에 필요한 교육(세무회계, 브랜딩, 마케팅,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프리마켓이나 페어,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실제 1기 창업팀이었던 '버거핀'은 무신사, 29cm, 오늘의 집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였고, '플가'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참여 계기로 아트박스 전국 매장에 입점하기도 했다. 2기 창업팀 "윈드베인"의 웹툰은 네이버에 연재하는 등 근화동 396 창업팀들은 춘천에서 콘텐츠 기반의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49팀(1, 2기 졸업팀)이 근화동396의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도 춘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마켓 396'



입주팀들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화동396' 스토어

올해 활약할 3기 입주팀

올해 3기부터 근화동 396의 세계는 더 다양해졌다. 모집 분야가 핸드메이드, 일러스트와 같은 창작 기반에서 개인의 개성, 가치를 지닌 라이프스타일(생활양식) 브랜드까지 확장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작은 브랜드(small brand)'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팀은 총 15팀으로 다음과 같다.

▲친환경 디자인 굿즈 오오티오 ▲그릭요거트 요거참 ▲수제 비누 몽글리 ▲분재 분(BOON) ▲패브릭 디어마 ▲천연원석 주얼리 작 은보석 ▲화과자 메이슈공방 ▲실크스크린 딥 스튜디오 ▲아웃도 어 고프빌리 ▲비즈 주얼리 준수비즈 ▲모자 아오프클럽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굿즈 하시오하우스 ▲레진 아티산 키캡 키미다 ▲쌀 디저트 뽕미브레드 ▲사진 클래스 로이스 사진공방

궁금하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

3기 입주팀은 반 이상 아직 상품을 만든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 대표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집중 할 예정이다. 근화동396 입구에 자리한 스토어(상점)에서 입주 팀의 상품을 판매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에 열리는 '마켓 396'에서는 창작자가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한다. 15팀의 작업공간은 평일 11시부터 5시까지 열 려있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10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로 컬 브랜드 페스타' 축제가 크게 열릴 예정이다. 조한솔 센터장은 "센터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곳이다.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나만의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각자의 가치를 가진 청년들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⑥



춘천은 지금

춘천시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500만 시대의 그늘, 바로 유기동물 문제다. 수백 만원짜리 목줄과 명품 옷을 두른 반려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반려견도 많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는 현재 232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았다.

글 한수지 사진 윤현



유기견 사모, 새 가족 만나는 날

내 이름은 사모예요. 저를 씻겨주고, 털을 빗겨주는 박자민(24)씨가 저에게 사모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북극 지역 흰색 스피츠인 사모에드 믹스견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온 것은 2개월 전쯤이에요. 경춘공원을 신나게 뛰어놀다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공원을 서성이다가 낯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이름을 68번이라고도 불러요. 이곳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공고24-68'이라는 번호가 생겼기 때문이래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놀이터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금방 적응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작별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오랫동안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강아지별로 갈 지도 몰라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던 친구들은 "꼭 새 가족을 만나야 해"라고 신신당부하며 강아지별로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저의 하얗고 풍성한 털을 좋아해요. 부드럽대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달리는 거예요. 털을 휘날리며 반려견 놀이터를 달릴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절 데리러 온대요. 친구들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해 줬어요.

저는 자민씨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예쁘게 단장했어요. 새 단장을 하고 놀이터에 나오니 날아갈 듯 기뻐요. 새 가족을 만나는 날이라 더욱 많이 설레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에게도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작별인사를 했어요. "어머, 네가 이렇게 예뻐구나. 행복해라 사모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주디'로 제2의 견생 시작

지난 13일 사모에게 새 가족이 생기던 날 춘천 신동면 용산리에 있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사모의 새 가족은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보슬씨입니다. 사모는 개 이동장을 들고 놀이터로 들어오는 보슬씨를 본 뒤 새 보호자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15kg의 커다란 거구가 마치 작은 강아지 같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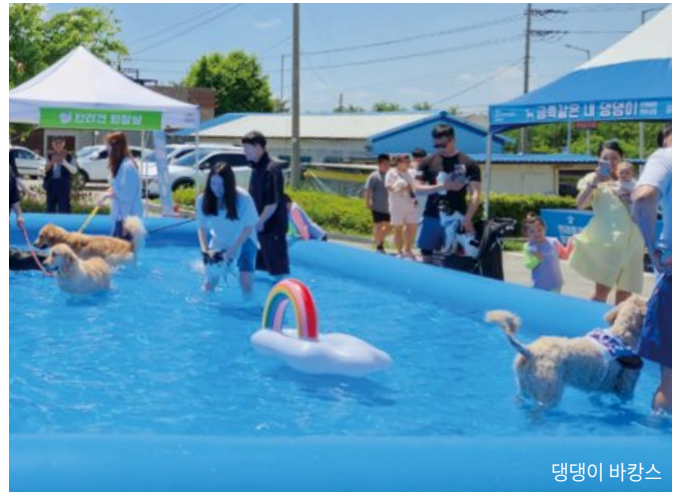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머나. 자기 엄마인 걸 알아보나 봐"라며 신기해했어요. 보슬씨는 6마리의 유기견을 키웠던 베테랑 보호자랍니다. 키우던 개들은 노령으로 강아지별로 먼저 보냈다고 해요.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접속했는데 자꾸 눈에 밝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3마리까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 아이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슬씨는 다른 지역 센터는 소위 뜬장*이라고 하는 곳에 5~6마리씩 집어넣어 키워서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춘천의 시설은 깨끗해서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가 몸에 쌀알만 한 칩을 넣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되는 동안 새 보호자는 준비해온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이수증을 냈습니다. 또 사모의 전염병 검사 결과, 예방접종과 키트검사 내역을 받았고, 15만원의 입양지원금을 안내받았어요. 68번 사모는 이제 '주디'라는 이름으로 제2의 견생을 살게 됐어요. 주디의 생일은 보슬씨와 만난 날인 3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 뜬장: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을 말한다. 뜬장에서 사는 동물은 평평한 바닥을 밟지 못해 발바닥이 갈라지고 염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동물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탱탱이 바캉스



용산리에 위치한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

유기동물과 가족을 잇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주디가 떠난 후 남은 아이들을 보러 보호 등으로 향했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는 주디처럼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해 보호 중인 유실 및 유기동물이 아직 232마리(개 230·고양이 2)가 남아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50마리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고양이는 치료가 끝나면 유기되었던 장소로 방사된다고 합니다. 견사는 무척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애견호텔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이곳에 보호되는 개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학대나 방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돼 들어왔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리 생활에서 구조된 경우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동물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구조현장에 출동해요. 센터에 들어온 동물은 가장 먼저 수의사의 검진을 받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주인을 찾는 공고를 열흘간 올리게 됩니다. 그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입양은 개체면담, 입양신청, 3일 숙려기간, 입양 순으로 진행된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법에 의한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확산과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을 떠올리게 되는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이런 편견을 보란 듯이 깨뜨리고 있어요. 춘천 센터는 동물 입양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페스티벌', '반려동물 패션쇼', '댕댕이 바캉스' 등의 축제를 통해 '유기견도 다 똑같은 개'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3월 23일에는 '국제 강아지의날'을 맞아 1년 미만 연령의 강아지 20마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우리랑 같이 놀개>도 개최했구요. 장수영 반려동물과 동물복지팀장은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리는 예쁜 보호 동물이 많으니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유기동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개가 궁극적인 행복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물을 돌보고 있었습니.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유기동물 입양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245-5785)로 연락하면 된다.



유기견 입양 이야기



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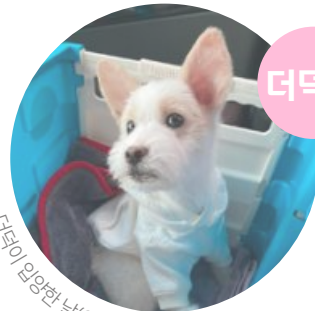
콩이 입양한 날(2023. 2월)

평소에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왔어요. 이제는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발견했어요. 고민하는 사이에 눈여겨 보던 동물들이 병으로 죽거나 안락사 되는 경우를 보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유기견들에게는 간절한 시간이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인천에서는 먼 거리였지만 평생 가족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입양을 결심했죠. 지금은 우리집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냅니다.

보호자 최아현 인천광역시



더덕이



더덕이 입양한 날(2020. 1월)

더덕이는 보호센터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 처음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산책 중 강한 바람에 현수막이 움직이면 숨어버리려고 해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 생명을 살리고 책임지는 과정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에 가치를 두었던 '선택' 그리고 '책임'을 진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쯤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린 생명이 도리어 우리를 잘 살게 할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 이메리 장학리

‘첼로하면 홍진호’를 떠올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JTBC 슈퍼밴드 최종우승팀인 4인조 록밴드 ‘호피폴라’에서 우아한 연주로 첼로의 매력을 한껏 뽐냈던 이는 춘천 출신 첼리스트 홍진호다. 정통 클래식 연주자로 시작했지만 첼로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나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단박에 실력파 참가자로 인정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 그는 유키구라모토, 조수미, 선우정아, 노영심 등과의 협연, 자작곡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첼리스트로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올해 춘천에서 열릴 4번의 마티네 콘서트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지난 14일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만났다.

글 한수지 사진 윤현



© Sangwook Lee

운명처럼 다가온 첼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옆방에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게 들렸는데 사로잡혔죠”

홍진호의 부모님은 LP 수집가였다.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고 자랐다. 어느 날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이 나오고 있었는데 쿵쿵 쿵 베이스가 울리는 3악장 도입부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소름이 끼쳤다. 엄마에게 달려가 이게 무슨 악기냐고 물었다. 첼로라는 악기라고 하셨다. 무작정 첼로를 시켜달라고 했다. 그때가 12살이었다. 한달 넘게 반대하던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고집에 못이겨 취미삼아 해보라며 35만원짜리 첼로를 사줬다. 그리고 당시 춘천시립 교향악단 첼로 수석이었던 이상순에게 연이 닿았고 그에게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공부를 곧잘 했기에 부모님은 과학고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그가 예고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또다시 반대하고 나



홍진호 첼리스트. 1985년생 춘천 출신. 슈퍼밴드로 유명해지기 전 약 12년 동안 정통 클래식 연주자로 활동했다.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 독일 뷔어츠부르크 음대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이탈리아 Ferdinando Garimberti(in Milano 1954)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섰다. 우여곡절 끝에 홍진호는 서울예고, 서울대를 거쳐 독일 뷔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최고연주자 과정을 밟은 ‘정통 클래식’의 길을 걸었다. 클래식계의 촉망받는 첼리스트인 홍진호는 깨끗하고 빈틈없는 자세, 저명한 첼로 콩쿠르를 휩쓴 연주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음악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대중음악과 만나면서다.

**혼자하는 음악도 좋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의미없어**

홍진호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2019년 열린 JTBC<슈퍼밴드>를 통해서다. 그는 2019년 유학에서 돌아온 후 클래식 음악 팬층이 두텁지 않은 공연계의 현실을 체감했다.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첼로 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볼 수 있겠다는 마음에 출연을 결심했는데 첫 방송 나가자마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선생님, 친구들 모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대중들이 클래식 악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다들 마음을 열어주셨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슈퍼밴드 초기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음악



이 생활 그 자체였던 대중음악 뮤지션들을 존중하게 됐고 비로소 즐거움을 느꼈다고 했다. 호피폴라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첼로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주었다. 멤버 모두 홀로 튀기보다는 그 속에 녹아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후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오롯이 첼로 하나로 20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을 관객으로 가득 채우는데 성공했으며 피아니스트 유키구라 모토는 ‘홍진호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색을 지닌 연주자’라며 상찬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궤적을 닮은 첼리스트

정통 클래식 전공자가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기시감이 일었다. 그에게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겹쳐 보였다. 엔니오 모리꼬네는 트럼펫 연주자로 시작해 정통 클래식, 엘리트 음악을 했던 이탈리아인으로 알다시피 지금은 영화음악의 거장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스승조차 그를 비난했고, 미국 아카데미는 반세기가 넘도록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게 꽃길을 돌아 험지를 곳곳히 개척하는 모습이 엔니오와 닮아 보인다고 하자 민망하다며 크게 웃었다. 그는 “맞아요. 최근 엔니오 모리꼬네의 전기영화에 감정이입을 했어요. 클래식 연주자가 대중음악에 가까워지면 악기만이 갖고 있는 섬세함을 잃을 수 밖에 없어요. 마이크 없이 어쿠스틱홀에서 연주하는게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대중과 호흡하는 연주에서 느끼는 희열과 영감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음악을 모두 잘 해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하는 길 밖에 없죠”라며 각오를 다졌다. 홍진호는 클래식 전공을 했지만 클래식 연주만 하지 않는다. 그가 연주하는 첼로는 어떨 때는 솔로 악기로써 오롯이 모든 걸 표현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대중음악의 한 파트로, 그리고 국악과 어우러지기도 한다. 어떤 장르와 만나도 색다르게,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가 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재밌어서”라고 답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모든 예술은 통한다

북악산 자락에 자리한 홍진호의 자택은 책, 미술, 음악, 인테리어까지 모든 예술이 공존하는 듯 했다. 어느 물건 하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은 심플함과 모던함, 그러면서도 나무책장, 식물과 그림이 어우러져 푸근함이 느껴졌다. 호젓이 첼로와 함께하는 그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홍진호의 공간은 깔끔하고 단정한 그와 꼭 빼닮았다.



내가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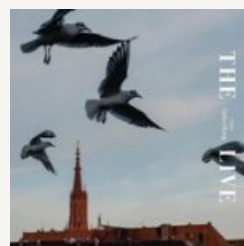
춘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춘천이라는 도시가 특별하다는 것을 독일 유학을 가서 깨달았다. 유학 생활을 하던 뷔어츠부르크에서 1시간 기차를 타면 하이델베르크라는 소도시가 나온다. 춘천과 많이 닮아서 자주 찾곤 했다. 그는 “얼마 전 독일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춘천으로 초대했는데 여기 꼭 유럽 같다고 하더라”면서 “최근에 공연하거나 부모님 뵈러 춘천에 자주 오는데 내가 참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품성기량시대, 좋은 사람이 좋은 연주를 한다

어쩌면 모든 것을 순화시키는 듯한 그의 겸허한 어법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홍진호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품성이 재능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는 최근작 ‘히든 포텐셜’에서 바로 그 ‘인성의 신비’를 탐구했는데 홍진호의 잠재력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품성이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클래식과 다른 음악과의 콜라보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 덕분일 것이다. 그의 연주가 대중들에게 와닿은 까닭도 같은 이유일 거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음악가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었다. “첼로 연주를 들었을때 제 소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음색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존재감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⁶




<첼로 독주회> 2019



<모던첼로> 2022

홍진호의 연주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채널 '홍진호 Jinho Hong'

* 4월 춘천 공연에서 직접 들어보기(봄내 26쪽 참고)

춘천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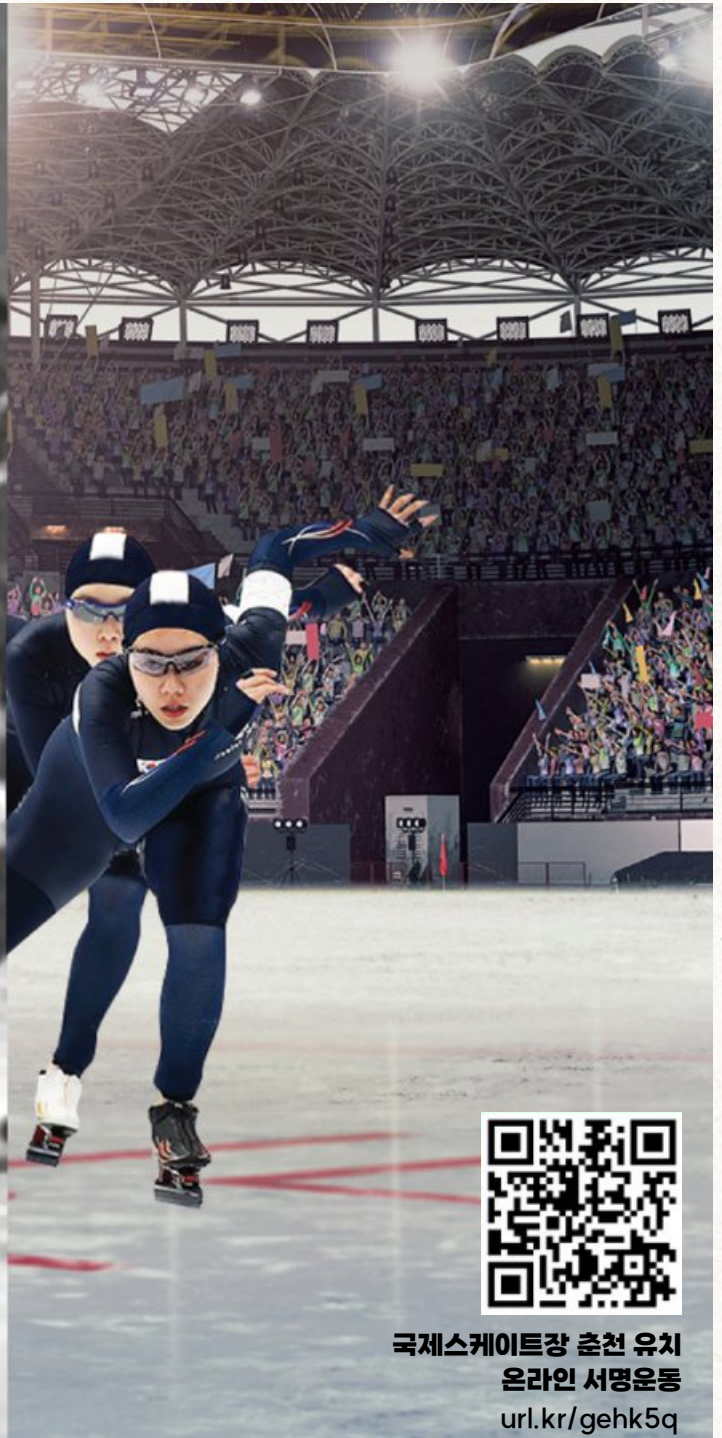
국제스케이팅장의 최적지, 춘천

국제스케이팅장 건립 최적지는 춘천!

2024

다시, 춘천!

태릉국제스케이팅장 대체시설 건립 공모사업 진행 중... 이미 준비된 춘천!



국제스케이팅장 춘천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url.kr/gehk5q

K-빙상의 원류, 춘천의 빙상역사

춘천은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빙상 본고장이다. 1929년 춘천 소양강 스케이트 대회를 시작으로 소양 1, 2교 아래에서 열린 조선빙상대회, 공지천으로 이동하여 1969~1972년 전국동계체전 개최까지 춘천하면 빙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1999년 까지도 제4회 동계아시안게임 경기가 춘천 의암실외빙상장에서 열렸고 많은 빙상 선수와 인구가 춘천을 중심으로 배출되고 육성되었다. 이미 1970년대 권복희 선수부터 1990년대 유선희, 이규혁, 백은비, 여상엽 등 수많은 빙상 선수가 춘천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1972년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전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 빙상 원류는 춘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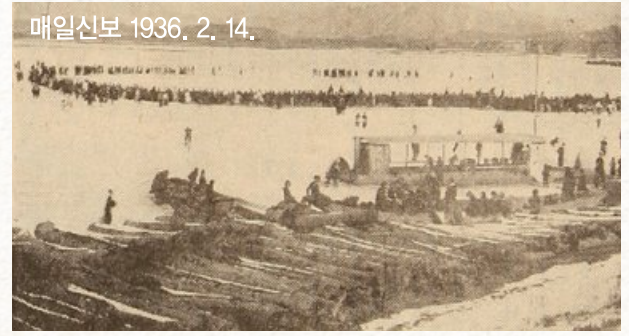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 춘천!

대한체육회에서는 2023년 12월 13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춘천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최적의 부지가 바로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에 있다. 현재 제안하려는 부지는 100% 국공유지로 즉시 부지제공이 가능하고 건축이 가능하다. 송암스포츠타운은 모든 스포츠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스포츠종합공간이다.

지난 1월 25일 GTX-B라인 춘천 연장이 확정되었다. 이미 수도권 생활권 도시인 춘천이 더욱 가까워진다. 2천만 수도권 시민이 1시간 내로 춘천을 오갈 수 있게 된다. 동서고속화철도와 경춘 제2국도까지 개통되면 완전한 수도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춘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도시며 천혜의 환경을 가진 도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먹거리,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광자원은 빙상선수단의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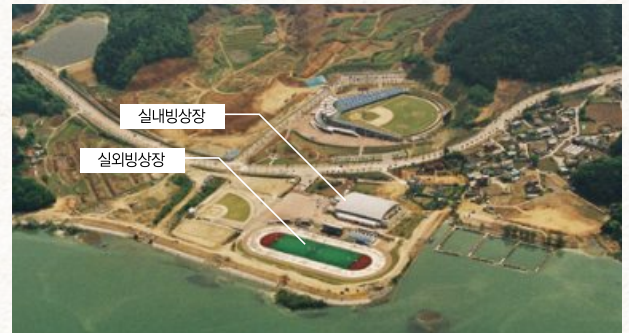
최고의 접근성과 최적의 건립부지, 춘천시의 지원의지까지 모든 요소가 춘천이 최적지임을 가리키고 있다.



1929년 1월 소양강특설링크에서 열린 빙상대회 모습



1969년 1월 27일 공지천 특설링크에서 개최한 국민학교 빙상대회



1997년 12월 1일, 대한체육회가 13억 원을 투입해 세운 춘천실외빙상경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

올 겨울은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관내 시민단체의 릴레이 응원이 연일 계속되어 100회를 훌쩍 넘겼고 지금도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춘천 옛 빙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민사진전이 계속되고 있다. 스케이트 D.N.A를 보유한 시민의 스케이트 동아리 결성도 40여 개가 넘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은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최종 선정까지 시민의 지속적인 응원이 절실합니다. 모든 시민분께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열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글 춘천시 체육과 사진 춘천문화원(춘천학연구소) 제공

정부가 인정한 **기업도시, 춘천** 판교를 뛰어넘는 첨단도시 도전!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기업혁신파크 춘천유치확정

지난 3월 11일, 춘천이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9년 전 기업도시 선정 탈락에 대한 아픔을 씻고 마침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 선정한 기업혁신파크는 경상남도 거제(바이오·의료 등), 충청남도 당진(모빌리티)에 이어 강원도 춘천(바이오, ICT)이 세 번째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해 토지 조성, 개발, 입주 등의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남산면 광관리 일대에 368만㎡(111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부터 2033년까지 사업비 9,364억 원이 투입된다. 기업혁신파크는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연 매출총액 2,500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량급 앵커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춘천의 앵커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주더존비즈온(이하 더존)이다. 더존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의료·바이오·IT 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첨단지식산업·연구시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교육시설, 숙박 및 관광휴양시설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 투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 개정했다. 최소 개발 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기업혁신파크는 첨단사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춘천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안과도 연계해 춘천에 걸맞은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며 앵커기업과 입주기업들의 세제(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무엇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IT, BT, 정밀의료 분야와 관련된 350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 사업으로 조성단계 1조 4천억원, 운영단계 5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춘천시는 올해 하반기 전담 조직을 부서 단위로 상향 개편해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인숙 투자유치과장은 “춘천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첨단지식특화클러스터로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할 것”이라며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와 어마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한혜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춘천 지정

춘천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춘천시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민선 8기 「최고의 교육도시」를 목표로 달려온 춘천시의 노력이 중앙으로부터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춘천시는 작년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고」, 아래로 「교육발전특구 춘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2개 기관 협약, 공모 신청서 제출 및 시장의 직접 대면심사참가까지 2개월여의 긴박한 여정을 발빠르게 소화해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며, 시범지역 운영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선정된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애 전주기 교육협력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를 교육 도시화”이며 이



를 위한 목표로 △지역인재 정주 △교육생태계 혁신 △교육선택권 확대 △교육거버넌스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4개 분야 추진전략과 18대 추진 과제를 특구 모델에 담았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시 전체부서와 교육청·대학·시민·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협력과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도시 명성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도시과 ☎250-3016

문자로 민원 응대,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범운영

전화 문의 불편 및 직원 개인정보 유출 해소 기대

춘천시가 3월부터 행정 전화와 시민 휴대전화 간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시 행정 전화에서 작성한 문자를 시민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각종 안내 문자에 민원인이 답장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발송하는 문자는 민원인이 수신만 가능했다. 이에 문자를 확인한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궁금한 점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문자수신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부담감이 사라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 통화 건수 감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의 행정 참여 유도를 통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시민과 소통이 많은 민원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회의와 주민 설명회 참석 여부 회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31개 부서의 120개의 행정 전화번호로 양방향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과 ☎250-3465

하수 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 생산

사업비 1,057억 원 투입 2029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춘천시가 이르면 2029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에 판매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춘천을 포함해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417억 원 등 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해 칠전동 일대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29년까지 구축한다. 기존 근화동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칠전동으로 통합 이전, 부지 집약화 및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지하화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악취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총 280톤의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한다. 이렇게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수소충전소에 판매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간에 조성될 사계절 온수 수영장 수온 유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판매 수입은 연간 43억 원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순환과 ☎250-3286

1,000만 관광 시대 선언한 춘천시, 주요 관광지 협력 할인 대폭 확대

협력 할인 주요 관광지 기존 8개소 > 20개소...1,000만 관광 시대 활짝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 춘천시가 올해 주요 관광지 협력 할인 참여 관광지를 대폭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 갤러리툰에서 주요 관광지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협약에 따라 3월 15일부터 주요 관광지 공동협력 사업이 시행된다. 주요 관광지 공동협력 사업은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이섬 입장권을 가지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방문하면 탑승권 30%를 할인받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 연계 방문 할인을 이용한 관광객은 2022년 1만 6,004명, 2023년 1만



1,192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대상지가 8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 주목된다. 무엇보다 기존 숙박시설이 1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정책과 ☎250-3064

춘천시, 봄내맨발로 생활권 근린공원 등 확대 조성

도시공원 4개소에 이어 공지천변 맨발길까지 연장·확대



지난해,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으로 춘천시에도 석사근린공원 (0.2km)과 공지천변(효자교~호반교, 1.3km)으로 맨발길이 조성됐다. 올해는 석사동, 퇴계동, 신사우동, 근화동 등 도시공원 4개소와 공지천변 맨발길이 연장·확대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내 조성을 확대하여 걷기 생활 실천 및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맨발로 내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

녹지공원과 ☎250-3149

산림 내 소각 행위 벌금 최대 3,000만 원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동산면 군자리 일대 산림 인접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제출기한내(10일 이상)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과 ☎250-4358

춘천의
풍경을
보내주세요

봄내한컷



새로운 봄날 공지천

시민 허남국



봄을 마주하다

시민 송한솔



누가누가 오래있나

오리 네 마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 물 속에 머리를 박고 꼬리를 하늘로 한 모습



공지천의 봄 풍경

시민 최신건



시민 윤종경



굳세어라 소양강처녀

시민 김주형

BOMNAE CULTURE



2024 마티네 콘서트 첼리스트 홍진호의 〈음악적 하루〉

공연

음악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됩니다. '음악적 하루'는 4월, 5월, 9월, 10월 총 4회의 걸쳐 춘천 출신의 첼리스트 홍진호가 진행자로 출연합니다. 4월에는 첼리스트 김민지가 첼로의 깊은 울림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관객들에게 평온함과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 관람료: 전석 2만원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일시 4.18.(목) 11:00 문의 259-5822,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 춘천시립교향악단

공연

올해로 36회를 맞은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가 춘천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클래식 물결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인 주희성과의 협연으로 각양각색의 연주와 고전부터 낭만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품격 클래식 음악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질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 춘천시립교향악단'에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세요!

- 관람료: R석 5만원(할인가 3만5천원), S석 4만원(할인가 2만8천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일시 4.18.(목) 19:30 문의 259-5878,9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연극 <댄스씨어터 봄봄>

공연

2023 화제의 작품, 댄스씨어터 봄봄이 봄맞이 공연으로 돌아옵니다. 소설가 김유정 작가의 작품 봄봄을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만든 연극. 장인어른 봉필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순이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 4월, 아트팩토리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관람료: 전석 3만원
(얼리버드 50%, 춘천시민 40%, 아트팩토리봄 공연 티켓 소지 60% 할인등)

기간 4.18.(목)~20.(토) 목금 13:30, 토 14:00
문의 263-7222 장소 아트팩토리 봄

BOMNAE CULTURE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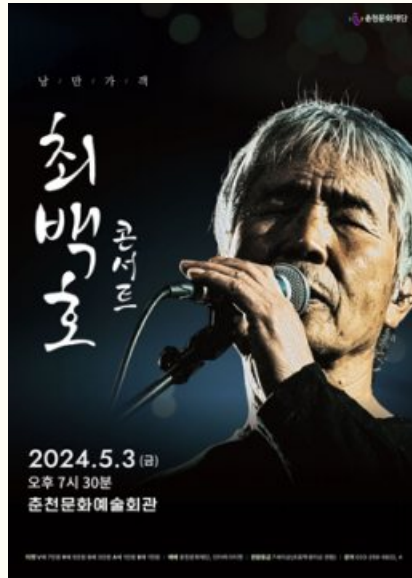
공연

강원의 사계 <봄> 두드림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공연, 마음을 두드릴 '타악 앙상블' 연주로 2024년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이 막을 올립니다. 퍼커셔니스트 한문경과 김은혜, 그리고 3명의 신예 퍼커셔니스트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 무한한 매력을 지닌 타악기 공연으로 신선하고 경쾌한 리듬의 향연을 느껴보세요.

-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강원도민 50% 할인 등)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 예매방법: 인터파크티켓, 대관령음악제 홈페이지

기간 4.27.(토) 17:00 문의 240-136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최백호 콘서트

공연

'낭만가객' 최백호 콘서트가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으로 마음을 적시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최백호의 콘서트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그의 대표곡들을 9인조 최백호 밴드의 LIVE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이 따라 더욱 깊어진 인생의 낭만을 노래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B석 1,000원
- 관람연령: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기간 5.3.(금) 19:30 문의 259-5822,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수집 in 춘천

전시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는 춘천과 관련된 기록물(유물)을 수집하여 매년 '춘천시민 생활사 기록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전시가 6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춘천시민 이춘희님께서 기증해 주신 153점의 기록물 중, 1960년~1990년대 춘천의 사회상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증자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춘천의 옛 생활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간 3.6.(수) ~ 4.12.(금) 공휴일 휴관
장소 춘천문화원 1층 로비 문의 261-5105

BOMNAE CULTURE



<너의 얼굴>

전시

공공미터 협동조합 8인전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작환경을 모색하며 창립한 작가 협동조합 공공미터의 단체전이 열립니다. 8명의 작가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누군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며 담아낸 따뜻한 작품들이 관객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손수 기른 알로에를 발라주시던 할머니부터 세상의 위험과 내안의 불안으로부터 지켜주고 보듬어준 부모님,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열어준 아기,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과 내 안의 또 다른 나까지, 작가의 일상 속 인물들이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스토리에 공감하며 스스로를 추억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초상화 그려주기 3.30(토) 15시,
축하 공연과 만남의 날 4.6(토) 15시

기간 3.26(화)~4.14(일) 월 휴관 문의 261-5114
장소 갤러리 느린시간(서부대성로 446-2)



나의 색,

전시

그 치유의 하모니(Harmony)

춘천문화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재출' 프로젝트 선정된 전시입니다. 전문 여성작가 예술인 32명은 각자의 색을 가진 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높이고, 관객들에게는 전문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간 4.1(월)~21(일) 문의 010-9480-5859
장소 갤러리 공간제로(동면 공단로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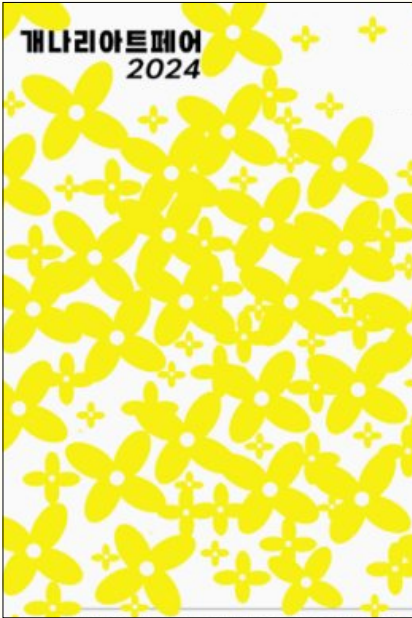
강선주 개인전 <다시-봄>

전시

자연과 아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강선주 작가의 11번째 개인전이 카페 더웨이에서 열립니다. 새로운 봄을 환영하는 의미의 이번 전시는 산과 들, 아이와 동물 친구들, 숲속에 부는 바람, 하늘의 구름, 작은 곤충과 이름 없는 풀꽃, 새들의 지저귀임까지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간 4.1.(월)~5.12(일) 문의 010-8791-4226
장소 카페 더웨이(신동면 풍류1길 72)

BOMNAE CULTURE



개나리아트페어2024 :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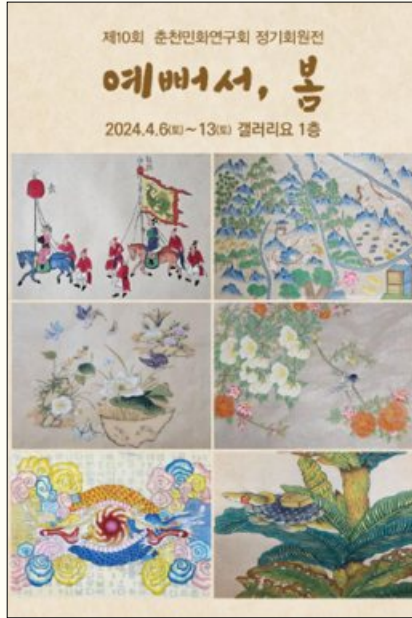
춘천작가

거두리 개나리미술관에서는 올해 첫 번째 전시로 봄을 알리는 아트페어를 개최합니다. 2022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인 개나리아트페어의 주제는 '춘천작가'입니다. '춘천'의 정서를 대변할 만한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아트페어는 누구나 관람하고 누구나 작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총 100여점의 회화, 판화, 공예, 조각 등이 전시됩니다.

*참여작가: 강연이 김영훈 백윤기 신대엽 안종중 이승호 이완숙 이한나 최영식 최찬희 한동국 공혜진 길종갑 서숙희 서슬기 이재복 정보경 최덕화 황호석 황효창 (총 20명)

기간 4.5.(금)~14.(일) 문의 070-8095-3899

장소 개나리미술관(동내면 거두리 1123-6)



제10회 춘천민화연구회

전시

정기회원전 <예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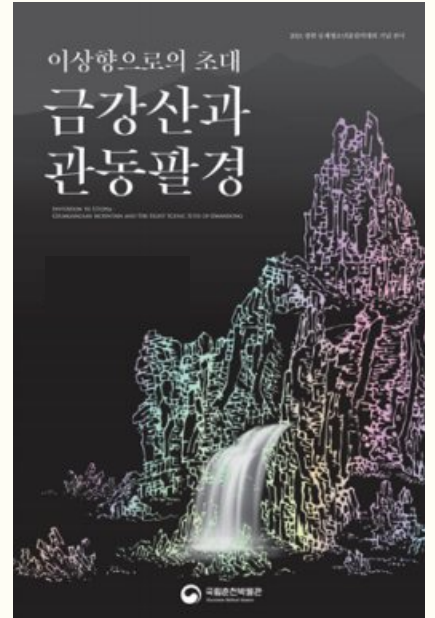
춘천민화연구회는 2016년 결성되어 올해로 열 번째 정기회원전을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갤러리요에서 엽니다. 봄꽃이 활짝 피는 계절에 <예뻐서, 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참여작가:

김근영, 유선주, 홍경원, 홍남주, 정철자, 박정남

기간 4.6.(토) - 13.(토) 문의 010-4293-0308

장소 갤러리요(서부대성로 44번길 2)



금강산과 관동팔경

전시

국립춘천박물관 브랜드존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에서 총 11건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새롭게 전시된 <총석정도>는 현대까지 전하는 관동팔경 그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묘사된 돌기둥, 그 사이로 몰아치는 파도가 만드는 하얀 포말, 기둥 꼭대기에 자리 잡은 소나무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생동감 넘치는 그림 속 관동팔경을 만나러 오세요.

기간 2024년 내내 문의 260-1521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2층 브랜드존

BOMNAE CULTURE



제11회 Art원 회원전

전시

<우린 지금 춘천에>

춘천 풍경과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 50여 점과 자유 주제 작품 50여 점 총 100여 점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술 동아리 아트원은 2009년에 창립해 춘천에서 그림(소묘, 펜화, 수채화, 유화)을 그리는 순수 아마추어(취미) 회원단체입니다. 평소 공동 화실에서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 참여회원:

곽보애, 금동춘, 김영미, 김이경, 김정숙, 김춘심, 김현숙, 박춘하, 변애엽, 안경애, 오병화, 오영옥, 유만명, 유옥재, 이의숙, 이시한, 이창순, 이혜영, 임수영, 이혜숙, 정능섭, 정영순, 조동순, 조휘중, 송혜경, 최영희, 황순란, 황은희, 황필자 (총29명)

기간 4.10.(수)~14.(일) 문의 010-6318-6002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개교90주년 기념

전시

춘천여고 미술인전>

미술을 사랑하는 춘천여고 동문들이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전시를 엽니다. 회화, 공예, 도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하나가 되어 진행되는 따뜻한 전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살아온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선후배 간에 삶의 풍경을 그려내는 시간 속 목백합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 오픈 행사 4.12.(금) 15시

기간 4.12.(금)~17.(수) 문의 010-6438-2256
장소 춘천미술관



'사이 ㅅ' 창립전

전시

<오솔길 여행자>

춘천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던 평면 회화 작가 강선주, 이향미, 임영옥, 조임옥 네 명이 모여 '사이 ㅅ (사이 시옷)'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전을 엽니다. 창립전의 주제는 '오솔길 여행자'로 각자 다른 장르의 오솔길을 걷던 여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의미입니다. 오롯이 혼자 작업하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시 중 작가와 함께하는 원데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원데이 클래스 문의 010-9343-8605

기간 4.19.(금)~24.(수) 문의 010-9343-8605
장소 춘천미술관 2층

BOMNAE CULTURE



<장경희 개인전>

전시

나는 어린 시절 “너의 꿈이 무엇이나?”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인생을 이 나이 되도록 살다보니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조금 내 시간이 생기니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중략)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작가노트 중-

기간 4.19.(금)~24.(수) 문의 010-3222-1972
장소 춘천미술관 1층



<영원하라! 상록의 빛으로>

전시

춘천고 개교 100주년 기념 전시회

이 전시는 춘천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춘천고등학교 미술부 동문들의 작품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업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뿐 아니라, 춘천고등학교 출신 작가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춘천고등학교 시각예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행사: 4.19.(금) 11:00 팝가수 오드리, 국악 그룹 휘안, 클랑양상블의 축하공연 진행

기간 4.19.(금)~28.(일) 문의 010-2305-5139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



황선희 개인전

전시

<栗谷觀風 울곡관풍>

나는 갑작스럽게 결이 다르게 불어오는 바람에 직면할 때, 주로 고전에서 지혜를 찾아 확인하고 따르곤 합니다. 바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싶은 기대가 투영된 것입니다. 울곡의 숲(울곡전시)을 거닐어 봅시다.

기간 4.26(금)~5.1(수) 문의 010-8919-5690
장소 춘천미술관

#봄내가 추천하는 책 에디터's PICK

쏟아지는 책들 속에 선택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깊이있는 책읽기, 봄내와 함께 해요.
에디터 한수지



강아지에게

글 오예녹

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반려견과 함께살고 있는 오예녹 작가가 반려견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묶은 그림책 『강아지에게』를 펴냈다. 저자는 제주에서 유기견이었던 두 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문득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아이들을 왜 버렸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유기견 보호소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주로 느끼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강아지란 어떤 존재인지, 강아지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 한문장으로 요약된다. "잘못된 게는 없다. 잘못된 반려인이 있을 뿐"

출판사 달아실 금액 1만6천원



여름이 기차 안으로 스며들 때,

글 김병현, 강원애니고 학생들

"원손바닥을 펴보세요. '시'라고 쓰인 글자가 보이나요?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시를 쥐고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학기 초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시와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서관에 시집 300여 권을 늘어놓고 시집 읽기 수업을 하는 문학 교사. 모든 아이들을 '시인'으로 길러내는 강원애니고등학교 김병현 선생님과 시가 녹아있는 2학년 학생들의 삶을 담은 책 『여름이 기차 안으로 스며들 때』가 출간됐다.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애니고 학생들의 통학 모습이 담긴 "여름이 기차 안으로 스며들 때 나는 후련함을 느끼다"라는 구절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짓는 웃음이/푸른 맛을 내며/입안에서 툭툭 터졌고" 등 말로는 다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가 있다. 일상을 포착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학창시절을 알차게 보내라는 잔소리는 필요 없을 듯 하다.

출판사 부크크(BOOKK) 금액 9천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글 유시민

역사·정치·경제·글쓰기·여행 등 인문학 분야의 글을 써온 작가 유시민이 과학을 소재로 쓴 첫 책이다. 과학과 인문학이 교차·통섭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저자는 과학 책을 읽으며 인문학 공부로 배우지 못했던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과학의 토대 위해서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온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해야한다고 회한의 감정을 실어 말한다. 바보를 겨우 면한 사람의 과학이야기라고 소개하는 저자의 글은 날카롭지만 겸손하다. 과학만큼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동시에 주는 분야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과학의 사실에서 별 근거없는 감상을 함부러 끌어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출판사 돌베게 금액 1만7천5백원



이 호 정

서울아~서원아~ 항상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너희들이 있어 아빠 엄마는 늘 힘이 된다. 아빠 엄마도 너희가 더 큰 빛이 되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할게♡ 서서형제 많이 많이 사랑해♡



홍 호 인

애교쟁이 아들에 이어 더 애교쟁이 딸이 더해져 가족의 행복이 배가 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밝게 커주는 아이들에게 고맙고, 돌봄을 지원해주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박 유 경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차분하게 절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부모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족들 모두 정겨운 날이었어요.



박대현

우리집 막둥이 찹쌀이가 태어났어요! 형이는 기다리던 동생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족 사랑해♡

강 복 철

6명 아이들을 키우는 딸이 일본서 귀국하여 한국 체험한다고 6학년, 4학년, 2학년 3명이 첫 등교 하는 날 동생들도 덩달아 학교 간다고 아침부터 난리 법석. 다들 좋은 추억 쌓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매달 춘천 구석구석을 테마별로 소개하는 춘천가이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춘천



반려동물

귀여워

사랑해

글 한수지·한혜진 디자인·그림 스키이



애견카페 '발바닥'

강아지를 위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애견 카페. 강아지와 견주 모두를 위한 음료, 음식이 다양 한데 특히 강아지 음료 '멍푸치노'가 인기다. 카페 발바닥에는 이색포토존(목욕탕, 살롱, 명절, 포차 컨셉)과 넓은 마당, 오두막, 수영장(여름 한정)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된다. 반려 동물이 없어도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 동내면 거두길 26 ☎ 0507-1377-0052



애견유치원호텔 '개편한 스쿨'

반려견 유치원. 아침 8시부터 등원할 수 있으며 원하면 픽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식사와 간식을 먹고 후각 자극, 두뇌 자극, 미술 활동, 기본교육(앉아, 엎드려, 기다려, 캔넬하우스), 게임, 마사지, 신체운동 등의 다양한 유치원 프로그램을 받는다. 이용권은 하루, 한 달 단위로 끊을 수 있다.

📍 동내면 동내로 95 ☎ 263-1473



반려견 가족을 위한 '경강 펫 바이크'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로 반려견을 위한 전용 탑승석을 갖췄다. 댕댕이와 레일바이크를 타고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경험이 이색적이다. 펫바이크는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탑승이 가능하며, 반려견 체중 총합이 10kg이하여야 한다. 탑승 전후에 이용 가능한 300평 규모의 반려견 운동장도 놓치지 말자.

📍 서백길 57 ☎ 245-1000



반려동물 케이크 '명블랑제리'

반려동물 케이크 전문점.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얼굴을 본떠 만드는 커스텀 케이크가 인기가 높다. 컵케이크부터 롤케이크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식재료 알러지가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재료 변경 가능하다. 한국반려동물식품협회 본원으로 애견 동반 가능한 간식 클래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효평길57 1층 ☎ 010-8364-1392
 📷 @mungblancjery 🗨 카카오톡 상담 '명블랑제리'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어질리티 터널 등 놀이시설과 대형파라솔, 벤치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대형견, 중·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배변봉투도 비치되어 있다. 동물보호등록된 강아지와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무료다. 오늘 하루 신나게!

📍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신북읍 영서로 3282)
 ☎ 245-5785
 ⌚ 10:00 ~ 18:00



물레길 여행 '킹카누'

춘천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의암호에서 카누 타기가 가능하다! 킹카누 물길여행은 킹스맨(카누 가이드)과 함께 춘천 의암호의 8경을 둘러보는 물길 소풍이다. 소형견과 중형견은 1만원, 대형견은 2만원으로 카누 하나에 타는 인원이 적다 보니 예약은 필수.

📍 송암동 684 ☎ 251-9600



반려동물미용 '개중목욕탕'

애견미용실. 레트로 콘셉트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목욕 및 미용 후 반려견 전용 펫마크는 기본, 멍맥주, 멍콜라, 멍걸리 마시기. 견종별 피부에 맞춘 아로마 오일, 머드팩, 스파도 만나보자. 반려견 인생샷 건질 수 있는 목욕탕 포토존은 지나치지 말 것.

📍 강원 춘천시 우석로 79 1층(석사동)
 ☎ 010-4251-9977
 📷 @dog_public_bath



도란도란

노인들은 클라이밍 하면 안 되나요?

글 시민기자 김두산

춘천에 평균나이 65세인 클라이밍 동호회가 있다. 정식회원은 25명인데 그중에서 65세가 넘는 회원이 무려 15명이나 된다. '무아지경'이라고 불리는 이 동호회의 시작은 심영식 선생님의로부터다. 그는 퇴직 후 삼악산으로 등반을 다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0대였다. 클라이밍은 젊은 사람만 한다는 선입견을 철저히 깨부순 것이다.

사실 클라이밍은 오히려 노인이나 여성에게 더 적합한 운동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젊은 남성들에 비해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클라이밍을 떠올리면 암벽에 오르는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도 할 수 있다. 굳이 암벽에 계속 오르지 않더라도 아래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매달려서 근력도 키운다. 한 회원은 67세에 시작한 클라이밍 덕분에 69세인 지금 오히려 근력이 늘었다고 한다. 뒤늦게 근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는 어르신도 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재미를 붙이기에 어렵다고들 한다. 반면 클라이밍은 여럿이 하는 운동이기에 흥미롭다. 나이가 들면 대화상대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클라이밍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회원들은 나이가 들어 마침내 찾은 이 취미생활을 너무도 사랑한다.

게다가 춘천은 클라이밍 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이다. 일단 봄내체육관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송암 스포츠타운과 드림산 외벽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코스다. 타시도에는 상업적 암벽장이 많지만 춘천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춘천에 살면서 클라이밍을 하지 않는 건 큰 손해다.

흔히 60대는 무엇을 배우거나 시작하기에 어려운 나이라고들 한다. 다른 것도 아닌 클라이밍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비웃기도 했다.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클라이밍 동호회 무아지경

오늘 춘천에 살고 내일 춘천을 그리는 사람을 심다

글 시민기자 이계림

춘천에서 작가들이 머무른다면 그 흔적이 작품 속에서 나이트처럼 새겨질 수 있을까.

춘천예술촌 입주작가로 2년여 간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내일을 보는 오늘'이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8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9명의 작가는 2022년 춘천예술촌 개관부터 지금까지 머무르며, 작업의 과정을 담거나 작업의 과거를 펼쳐놓았다. 그 안에서 춘천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전시를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장승근 작가의 그림은 작업실에서 눈에 담았을 법한 물체들이 보인다. 이젤과 물감, 눈이 쌓인 자동차. 눈이 흠뻑 쌓인 어느 겨울 작업실의 문을 열었겠구나 하며 그날의 기온도 추측해 본다. 전영진 작가의 작품에서 춘천은 좀 더 직접적이면서도 몽환적이다. 누구나 알아챌 법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과 팔호광장의 어느 건물은 동화 속 모습으로 숨어있다. 춘천 출신인 송신규 작가는 유년 시절 속 춘천을 기억하고, 잊히고 사라지는 것을 작품으로 옮겼던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 기록 공간으로 표현했다.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낯선 춘천은 춘천예술촌에서의 작업은 춘천시민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보여준다. 우리 지역에 예술인이 왜 필요할까. 타인의 시선으로 재발견하는 일상적인 풍경은 단조로웠던 생각의 팔레트에 색을 더한다. 몇몇 작가의 작품에서 춘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광범위적이고 풍부한 주제도 살펴볼 수 있다. 홍준호 작가는 유럽 여행 중 버룩시장에서 구매한 아날로그 필름 속 여인을 스캔하고 디지털화했다. 인물이 나 스토리가 아니라 색 레이어를 합치는 작업 방식을 중점으로 보여줬다. 중첩된 강렬한 색깔 옆에는 박시월 작가의 꿈처럼 몽글거리는 유리 작품과, 이효숙 작가의 연필 흑연으로 뒤덮인 한지 작품이 보인다. 어린 딸과 유년시절을 겹쳐 보이는 루시 작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땅의 태동과 배너저고리, 땃줄의 상징이 보이는 박소영 작가. 너무나 다른 성격의 작품이 한 공간

에 모여 관객은 공통점과 차이를 짚으며 생각의 나래를 펼친다. 시간성을 상징했다는 9개의 아치형 구조물은 각자의 작업실을 엮보는 느낌을 준다. 공간을 이동하는 문이 되거나 시선의 연결고리인 창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색다른 감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과 시간의 교집합으로 엮였던 작가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내일을 향하겠지만, 춘천의 토양에 발을 담갔던 시간은 먼 미래에 어떻게 자리할지 궁금해진다. 미래를 위해 식목일에 심는 나무 한 그루처럼, 내일을 보고 하나하나의 예술을 춘천이 품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올해 다시 새로운 작가들을 맞이하는 춘천예술촌에서는 어떤 예술의 나무 그늘을 즐길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된다.



도란도란

장애인이스하키 국가대표에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다 글 시민기자 이종현

지난 2월에 폐막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조영재(40. 우두동) 씨가 선수로 출전해 맹활약을 펼친 끝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실 조 씨는 16년 동안 빙판 위를 누벼온 장애인아이스하키 선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파라아이스하키팀 선수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 첫 올림픽 동메달을 선사한 주역이었다. 오랫동안 실업팀과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조 씨는 3년 전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그리고 우두동에서 자영업자로 지내다가, 실업팀 소속이 아닌 일반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팀에 합류해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수확한 것이다.

이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화려한 선수생활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선수로 뛸 수 없기에 과감하게 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의 목표였던 창업으로 가게를 꾸린 것이다. 10살 무렵 다리를 다치고 수술 후 유증으로 장애를 가진 조 씨. 운동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또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국가대표 등 유망한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창업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기에 걱정하지 않는다면 환하게 웃는 조 씨. 지금 운영하는 곳이 생선구이 등을 취급하기에 국가대표 선수에서 우두동의 생선 총각으로

불린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포환과 원반던지기, 창던지기에서 많은 금메달을 수확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포환,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가게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빙판 위에서 꿈을 이룬 것처럼 극복할 수 있다며 환하게 웃는 조 씨. 장애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였던 것처럼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리는 모습에서 밝은 내일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조 씨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겨 큰 버팀목이 되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한다.

빙판을 벗어나 도전을 펼치는 조영재 씨



우두동 생선 총각을 응원합니다!

함께 농업을 배우고 교류하는 청년 4-H 연합회

글 시민기자 이재민

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해지고,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로 청년 농부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특성(기온, 토양 등)에 알맞은 작물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춘천에는 청년 농부들이 농업 기술을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 바로 '춘천시 청년 4-H 연합'이다.

190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단체로 농업구조와 농촌 생활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농심(農心) 배양을 목표로 두고 있다. '4-H'란 두뇌(head), 마음(heart), 손(hand), 건강(health)을 뜻하며,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47년에 시작되어 작물 재배·선진 영농기술을 배우는데 우선권을 두었고, 4-H 운동은 이후 1970년대 새마을 운동까지 이어졌다.

박동주 부회장(여)은 "농업이 막막했는데 4-H에 가입하고 나서 농업인 선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제 막 농사를 업으로 삼는 청년 농부들이 4-H 안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받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자녀들을 위해 농촌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집의 대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에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문을 닫는 건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더라. 4-H 회원한테 들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지내니까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주민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간접적인 경험과 교류를 통해 알아가는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춘천시 4-H 연합회는 이외에도 과제포사업(공동작물 심기), 화천군 농업인들과의 교류, 강원도 농업경진대회 참여 및 연말 연탄 봉사 등 '지덕노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 중이다. 활동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춘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50-3546)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농부들이여! 함께 해요!

과제포 중간 제조작업



강원도4h 경진대회 참가

최돈선의
들레마을 이야기 ①6

최돈선 시인. 춘천시 들레엔 1개 읍, 9개 면이 있다. 나는 그곳이 궁금하다. 그 고요한 곳에 현자는 있을 것이다. 당산목 같은 우직한 당신의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나는 6년 전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졌다. 10년 전 나는 인제군 남면 소재지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세탁기나 밥솥을 다룰 줄 몰랐다.

젊었을 때 어머니의 된장찌개나 두부찌개는 내 친구들에게 대단한 인기였다. 지금도 친구들은 70이 넘었어

도 내 어머니의 된장찌개나 두부찌개를 잊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의 솜씨는 치매가 찾아와 동행하기 시작하고부터 영원히 잊히고 말았다. 나도 늙어버린 나이로 신남으로 돌아와 어머니 대신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리고 반찬을 만들었다.

하루의 시간은 길었다. 자주 어머니는 우셨고, 자주 어머니 옛날의 소녀로 돌아갔다. 밤이나 낮이나 어머니를 판을 쏘다녔고, 자주 자신이 만든 상상의 집을 찾아 헤매었다. 집에 가야 해, 어디니? 어디가 내 집인 거야….

달이 뜬 날, 어머니 한밤중에 멀리 호수로 나갔다.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불렀다. 아, 그 부름은 자신의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서 호수로 간 그날 밤, 검은 새 한 마리가 호수 건너 북쪽으로 날아갔다. 어머니도 외로웠고, 어머니 뒤를 따라다녔던 나도 외로웠다.

어느 날 나는 이웃동네 면장집에 초대되어 갔다. 어머니

는 주무시고 계셨다. 면장집 마당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오랜만에 나는 취했다. 나는 어머니 걱정에 걸음을 재촉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길이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더 깊은 도랑에 추락하고 말았다. 간신히 일어나 몸을 추스른 나는,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다. 눈가가 찢어진 모양이었다. 불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한밤중 누군가가 분주히 내 방을 드나드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린 새벽까지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자 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밤새 어머니 나를 간호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마른 수건에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내 상처 부위를 닦고 약을 바르고를 밤새도록 했나 보았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늙은 자식을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걸 눈을 뜨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자식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리고 6년 뒤, 어머니는 매정한 자식에게 한마디 원망의 말도 꺼내지 않은 채 해탈의 강을 건너셨다.

-비술나무 아래 메주가 뜰 때

경칩이 지났으니 봄이다.
춘천 시민이 봄내지를 받아보는 날은 춘분이 지나는 25일이다.
하지만 꽃샘추위는 늘 오게 마련이다. 움츠린 나뭇가지엔 아직 새순을 틔우지 않고 있다.
나는 송곡대 김현희 교수와 동면 천사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간다. 마당 비술나무 아래 겨우내 잘 뜯 메주가 소담히 쌓여 있다. 이 메주로 울봄 간장을 뽑고 된장을 익



힐 것이라 한다.

천사노인복지센터의 된장 맛이 전국 제일이라고 임종미 원장은 엄지를 치켜세운다.

마흔여섯 분의 노인들이 계시는 복지센터는 멀리 삼악산이 건너다보인다. 잿빛 구름이 산마루를 얇게 덮었다. 지는 해가 햇무리를 이루어 주황빛으로 붉다.



임종미 원장은 소녀처럼 명랑하다.

이 티 없이 맑은 소녀가 우울하고, 아프고 한숨짓고, 울고 웃는 어른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머지않아 해탈의 강을 건너야 하는 어른들의 고독을 원장은 가슴 깊이 느낀다.

강기슭까지 행복하게 가는 길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꽃잎 뿌리듯 떠나는 저 망각의 배를 향해 무언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별은 그렇게 운명처럼 온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고마웠어요.



좋은 곳으로 잘 가세요.

당신이 꿈꾸는 곳으로 가세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오후 다섯 시, 저녁 식사가 한창이다.

둥근 테이블 주위로 할머니 일고여덟 분이 앉아서 저녁밥을 먹는다.

자기 힘으로는 밥조차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 원장이나 영양사 선생님이 밥과 반찬을 떠 드린다.

자기 혼자 드실 수 있는 어른은 창가에 앉아 혼자 밥상을 마주한다.

식사 시간엔 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이 가벼이 부딪는 소리가 난다. 우물우물 음식을 씹는 어른들 표정에선 아름다운 생의 음악이 마법처럼 펼쳐지는 느낌이다. 밥이 힘이다. 미약한 몸으로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삶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인가.

-오후의 스케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흐린 주황빛 햇무리를 내다보던 할머니께 원장이 묻는다. 네.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하는 이는 아흔둘의 할머니다. 언뜻 보아 70대의 건강한 노인의 풍모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4개월 전에 왔다고 한다. 김현희 교수가 조심스레 묻는다. 여기 괜찮으세요? 그러자 아흔둘의 할머니가 미소로 대답한다. 그럼요, 좋아요.

묻는 말에 선선히 대답하고 넓은 유리창 너머 빈 눈을 바라본다. 벗단 태우는 연기가 흐린 하늘로 푸르게 퍼진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지금 뭘 잡숫고 싶으세요? 묻자, 무등산 수박이죠 라고 대답한다.

할머니의 마음속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무등산 수박처럼 둥글게 둥글게 모두 다 행복하라고.



째의 할머니다. 아흔의 나이에도 살림살이가 야무진 분이다. 특히 이 초록 할머니의 된장 비법은 원장과 요양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칭찬하는 맛이다. 마당 비술나무 아래 쌓여 있는 메주로, 올해도 향아리에 간장과 된장을 담글 것이다. 총사령관은 당연히 초록 할머니가 맡는다.

간장과 된장이 익어가는 어느 한적한 요양원.

모두의 어머니와 모두의 아버지가 이 맛에 익숙해져 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된장을 떠올린다. 그리고 문득 창밖의 하늘을 쳐다본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혹시 어머니의 새는 아닐까?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저녁노을처럼 삭아가는 저녁.

나는 지금,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보글 보글한 된장 맛이 사무치게 그림다.*

하루에 몇 번 전화하세요?

두 번요.

전라도 말씨가 아니다. 아주 또렷한 표준어 말씨다.

저쪽에서 다홍빛 스웨터의 할머니가 원장에게로 와 휴대전화를 건넨다. 원장이 번호를 눌러 할머니에게 넘긴다. 딸과 어머니의 대화는 아주 짧다.

밥 먹었어, 응응. 그래, 그래. 알았어. 니들도 잘 있지? 여기 괜찮아. 응?응? 밥? 응, 먹었어.

귀가 약간 먹은 노인은 잘 듣지 못한다. 밥...밥, 응, 잘 있어, 그래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녹음기처럼 반복된다. 아마도 자식들에게 안심시키려는 눈치가 역력하다.

저쪽 할머니 방에서 한 분이 갑자기 온다. 조용히 달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쪽을 바라보던 초록 옷의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다 짐이지.

맛의 달인인 구순의 할머니다. 천사복지센터 입소 6년



앞아서 세계 속으로 ④

김병현 지구별 여행자. 삶을 벗어나는 관광이 아닌 삶을 경험하는 여행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떠납니다.

오감이 즐거운 여행, 타이베이 ✨

글 김병현 그림 임희영



타이베이에는 먹으러 가야 한다. 보통 관광은 시각(視覺)이 절대적이지만 미식 여행은 미각, 후각은 물론 식감을 느끼는 촉각과 씹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각까지 오감을 즐겁게 한다. 처음 접하는 음식이 어떤 맛일지 기대하는 마음은 덤이다.

타이완은 더운 나라여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사 먹는 게 보편적이다. 외식문화가 발달했고,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도 다양하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는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특색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중화권 음식 중에도 가장 담백한 편이어서 부모님이나 어린아이 모두 좋아할 만한 요리가 가득하다. 고수나 향신료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깻잎이나 미나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맛이 좋다.

진정한 식도락 여행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곳에는 새벽부터 아침 장사만 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다.

또우장(豆漿)을 파는 가게에 들어섰다. 야외에 천막과 간이 테이블이 있는 식당인데 현지인들이 가득하다. 또우장은 일종의 두유로 속이 빈 파배기인 요우티아오를 여기에 찍어 먹는다. 따뜻하고 고소한 풍미가 속을 든든하게 한다.

또우장과 이름이 비슷한 또우화(豆花)도 있다. 연두부와 팥, 떡

등을 설탕물에 담가 먹는 간식인데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먹을 수 있다. 어떤 재료를 올리냐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먹거리만큼 볼거리가 많은 타이완에서 여행으로 지칠 때 한 그릇 먹으면 다시 힘이 난다.

이제 샤오룽바오(小籠包)를 먹을 차례다. 작은 대나무 찜통을 '샤오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작은 만두를 찌낸 것이다. 진한 육즙을 담은 만두소가 얇은 피와 어우러진 음식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채 썬 생강과 초간장을 곁들여 먹는데 입안에서 뜨거운 탕즙이 터지면 혀가 덴다. 숟가락에 곱게 올리고 옆면을 살짝 베어 탕즙을 빨아 먹은 후 나머지를 먹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만두보다 원체 작아 여러 판을 먹을 수 있다.

곱창 국수는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어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다. 시먼딩에 있는 유명한 가게에는 늘 여러 명의 한국인이 줄을 서 있다. 전분 가득한 국물에 곱창과 얇은 면이 들어있다. 고수와 소스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곳은 날씨에 일일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는데, 거센 비바람에 시달리며 쌀쌀해진 몸에 곱창 국수를 넣었다. 숟가락으로 후루룩 떠먹으면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진다. 대부분 자리에 서서 먹는데 그 불편함이 입맛을 더 돋우기도 한다.

면 요리라면 우육면도 빠질 수 없다. 기름기가 적어 깔끔한 맛

맛아서 세계속으로

을 내는데 크고 넓적한 고기가 아낌없이 들어있다. 소고기가 질기지 않아 가벼운 치악력으로 부드럽게 씹힌다. 현지인이 많이 가는 식당에서는 한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합석해서 먹기도 한다. 빨간 국물의 홍샤오紅燒 우육면이 일반적이지만 청둥淸燉 스타일로 맑고 개운한 우육면도 있다. 시간이 된다면 타이난이라는 도시에도 꼭 가보길 권한다. 우육면이 유명하다. 해가 지면 또 갈 곳이 있다. 바로 야시장. 타이완에는 크고 작은 야시장이 정말 많은데 타이베이외의 스린야시장, 닝샤야시장, 라오허제 야시장 등이 유명하다. 본격적인 맛과 냄새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닭가슴살을 널찍하게 펴서 튀긴 지파이, 생마늘과 함께 먹는 소시지 상창, 바삭하고 쫄깃한 식

감의 토란볼과 녹진하고 담백한 굴전도 꼭 먹어야 한다. 월을 데리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던 때가 생각났다.

영국 친구 월은 원어민 교사로 나와 친하게 지냈다. 한국에 처음 온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다. 춘천에서 막국수는 먹어보아야지. 서툰 젓가락질로 막국수를 한 입 머금은 그가 깜짝 놀랐다. 당연히 따뜻한 요리를 기대했나 보다. 면을 차갑게 먹는다는 게 낯설다고 했다. 뚝뚝 끊어지는 면의 식감도 처음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름이 되자 그는 내게 먼저 막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 슴슴하고 달콤하고 알싸한 맛을 월은 기억하고 있을까.

사람은 다양한 감각으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한다. 이 지면을 가득 채워도 다 담을 수 없는 타이베이의 수많은 음식처럼 춘천에도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데, 춘천은 여행자에게 어떤 맛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는 또 어디에서 어떤 새로운 맛을 보게 될까.



송주현 만천초등학교 교사.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 <착한 아이 버리기>, <초등학교 상담기록부> 저자. 33년째 아이들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

달팽이 선생님

글 송주현 그림 한선주



1학년 교실. 아침 활동을 끝내고 글자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교실 문을 뺨뚱 열고 서서 아부하는 웃음을 흘리며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달팽이 교실에 데리고 와도 되나요? 오늘만요. 히히.”

책가방은 어깨끈이 흘러내려 팔에 대롱대롱. 콧물은 줄줄.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표정이 환하네요?

“달팽이?”

아이는 빼기듯 가방을 열더니 블루베리 담았던 통을 꺼내 쪽 내뺍니다. 열어보니 방금 뜯은 배춧잎이 고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달팽이가 딱하니 앉았네요. 말끔한 집을 등에 지고 길게 뻗은 더듬이에서 위엄마저 느껴집니다.

“와, 멋진 달팽이네.”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아이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거 어찌지요?

“야, 이 달팽이 어서 잡았냐?”

“잡은 거 아니거든. 데려왔어.”

“야, 달팽이가 강아지냐? 데려오게.”

“데려왔으니까 데려왔다 그러지. 맞죠, 선생님?”

“응. 키우는 거라면 데려왔다는 표현이 맞아. 근데 어디서 데려왔어?”

“우리 아빠가 마당에서 데려왔잖아요. 히히.”

저는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를 데려온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네요. 멍한 표정에 시선은 달팽이가 올려져 있는 창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달팽이는 이따 보고 어서 공부하자고 말하려다 아차, 오늘은 왠지 봐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 들릴락 말락 저를 부르네요?

“선생님, 근데요.”

달팽이 배춧잎이 마르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달팽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

“화장실 가서 물을 좀 뿌려가지고 올게요. 히히.”

아이는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화장실로 내달립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연필을 내던지고 우르르 따라가네요. 아이



고, 공부는 어찌나? 달팽이 때문에 큰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리에 앉히고 공부를 이어가 봅니다. 그런데 달팽이 주인 아이가 또 한 마디 합니다.

“선생님! 공부 너무 많이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달팽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죠.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달팽이도 받겠죠.”

“아, 그래?”

“그리고 애들 아직 달팽이 다 못 봤단 말이에요. 야, 니들 아직 다 못 봤지?”

그러자 여기저기서 호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공부를 밀고 나가면 원망을 듣겠네요. 아이들도 짜기라도 한 듯 저를 향해 입을 비쭉거리고 눈을 흘기네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귀여움입니다. 저는 선심을 쓰듯 공부 주제를 살짝 바꿔 그럼 달팽이에게 편지 쓰기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 표정이 밝아지네요. 아이들은 저마다 달팽이를 들여다보고는 자리에 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아이보다 유독 정성스럽게 쓰는 아이가 있더군요. 바로 달팽이를 가져온 아이입니다.

비가 내려
우리 달팽이 물 먹을거 좀 내와
안 내와?
아오, 내려줘. 꼭.
내 부탁이다.



달팽이는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요즘 비가 안 와 걱정인가 봅니다. 달팽이가 마당으로 무사히 돌아가려면 어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원하는군요. 마음이 잘 담긴 좋은 글입니다. 오늘은 달팽이가 선생님이네요.



의회소식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che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출(발의)자	심의 결과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춘천시장	수정가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배숙경 의원 외	원안가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예 의원 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민섭 의원 외	수정가결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유경 의원 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수 의원 외	원안가결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김지숙 의원 외	수정가결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민섭 의원 외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재예 의원 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춘천시장	가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찬성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춘천 유치 결의안	김보건 의원 외	채택
강촌·가평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이희자 의원 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 유치 지지 결의안	김운기 의원 외	

현안과 이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2.22.)에서 김운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춘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풍부한 창업지원 경험과 최고의 기술 인프라, 개선된 교통 여건, 선도기업을 포함한 바이오 생태계 기반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한 춘천시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자 결의했다.

의회 국외연수 정책 제안, 시 행정에 속속 반영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후 제안한 정책들이 시 행정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중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시 관계 공무원은 조운동 상사 어울림센터 내에 '아이디어도서관'을 건립 중인데 의회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간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포럼 데 이마주' 등을 다녀온 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에서도 지난해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스위스를 다녀온 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엘로카펫)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색상까지 '노란색'으로 전면 적용하자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는 시 정책에 즉시 반영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9개소에 적용되었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국외 연수에 참가한 시의원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시장과 정책 반영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원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며 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5분 자유발언(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춘천대첩 영화화 제작 지원 촉구

춘천 전역에서 1950년 6·25전쟁 당시 3일간 발생했던 춘천전투를 영화화한 'NEVER AGAIN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 촬영 협조에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과 백창석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영화에 투자를 했다, 제작사와 어떤 관계냐, 상업적이지 않냐"는 등 본의가 왜곡되는 과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춘천대첩 영화를 통해 춘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도권 인접지역인 춘천시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기에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력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귀감이 될 영화 'NEVER AGAIN 춘천대첩 3일의 이야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동한 시장님과 백창석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들께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원 김용갑

5분 자유발언(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로써,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문화예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행복한 춘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지승민

춘천시 고등학교 친선연합체육대회의 재개최 제안

춘천시 고교연합체육대회는 1996년부터 2015년 16회를 끝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춘천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았던 행사였습니다. 춘천시의 13개 고교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동료로서 연대감을 쌓고 애교심과 애향심까지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춘천시의회 예결위에서 춘천시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후 행사가 폐지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활기를 되찾을 촉매제로서의 고교연합체육대회 재개를 적극 검토 추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기를 버텨내고 극복해내야함은 오롯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여론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육도시 춘천의 브랜드 마크가 될 화합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 박노일

의정활동 이모저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는 2.19(월) 춘천시의회 기획행정 위원장실에서 「2024 태권도대회 개최 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2.19(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 원문화 활성화와 호수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대해 보고받았다.



춘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은 2.22(목)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 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였다.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하여 김진호 의장 및 의원들은 3.1(금) 신북 읍 향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봄내골 소식

후평동 이모네불막창(대표 이해원)은 2월 15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석사2지구 경로당 어르신 1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2월 16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명숙)를 방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장갑 100켤레를 전달했다.

근화동 사랑의 빵 나눔회(회장 김순자)는 2월 16일 직접 구운 빵150개를 관내 5개 통(9~13통) 통장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는 2월 20일 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기준서)에서, 반찬을 만드는 “복(福)나눔미냉장고” 봉사를 펼쳤다.

약사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진태)는 '찾아가는 이웃돌봄 반찬봉사' 활동으로 취약계층 24가구에 반찬꾸러미를 전달했다.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단장 양영석, 주지 진철스님)은 2월 22일 관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4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효자2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영숙)는 2월 23일 효자2동 관내 저소득 가정에 연탄 1,600장(150만원상당)을 기부했다.

효자2동 산신약사암(대표 김미라)은 2월 26일 효자2동 관내 저소득 가정에 백미 10kg 30포(87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신북읍 농가주부모임(회장 유명연)은 2월 26일 출소자 사회 복귀를 위한 나눔 행사 사업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식료품을 전달했다.



후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연제철)는 음식점 해마(대표 성수호)의 후원으로 2월 28일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1명에게 점심식사(630,000원 상당)를 제공했다.

김태백축산물판매점 2호점(사장 김태희)는 3월 4일 후평2동 저소득층을 위한 한우사골을 후원했다.



춘천번개모임(회장 유상교)과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3월 5일 9인이하 요양시설에 2백만원 상당의 후원품(기저귀,감자,떡국떡)을 전달했다.

사단법인춘천청년회의소(회장 최성기)는 3월 4일 후평2동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50kg을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에 기부했다.



MG복춘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선호)는 3월 7일 춘천관내 복지관 및 인근 경로당에 튀김가루 980kg을 전달했다.

봄내골 소식

지혜안전(주)(대표이사 장덕범, 홍경숙)은 3월 8일 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기준서)를 방문, 관내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을 전달했다.



효자2동 터 신전(대표 한승희)은 3월 11일 효자2동 관내 저소득 가정에 백미 20kg 10포를 기부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후평2동공유주방에서 4찬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23가구에 전달했다.

복지정책과 후원

주식회사 영춘판넬(대표 민영홍)

2월 28일 300만원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법인 나누며 하나되기 2월 28일 생필품(마스크, 비누 등) 3,000만원 상당

익명의 기부자

3월 6일 쌀 300kg(85만원 상당)

봉사 및 행사

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기준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치매 및 낙상 예방교실을 총 16회 진행한다.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2월 16일 개소를 앞둔 청송경로당 환경정비 봉사를 진행했다.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종철)는 2월 19일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효자2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영숙)는 2월 23일 강원FC 시즌권 구매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

근화동 4개 자생단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및 직원은 2월 23일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응원 릴레이에 참여했다.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신사우동 마장천 생태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읍장 홍미순)는 2월 23일 유포1리 경로당(노인회장 김신림)에서 춘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센터 및 소양강댐노인복지관과 함께 신북읍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리마을 봄!봄!봄!>을 진행했다.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6일 후평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영신) 34명 통장 전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박광선)는 2월 27일 본금고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11명의 학생에게 총 8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후평2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장 최경숙)는 3월 4일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홍선영)와 춘천도시공사(사장 홍영)는 “찾아가는 시니어 헬스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퇴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현섭)는 3월 6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사)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퇴계동 소재 “버블맨24 셀프빨래방” 업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에 행복 무료 세탁실을 운영한다.

조운동 행정복지센터는 3월 8일 조운경로당(회장 이순자)을 방문, 춘천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활동으로 냅킨아트 예코백 만들기를 진행했다.

근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재경)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은 춘천시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고흥군과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에 동참하였다.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춘천시 보건소, LH효자주공8단지 관리사무소,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원대학교병원,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춘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아름다운가게가 지원하는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자립능력향상 프로그램 ‘봄봄’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오정민 님에게 치료비를,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세요

오정민(가명, 만58세)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병원 치료비와 자녀의 학원비입니다. 오정민 님은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이상반응이 생겨 몸이 점점 쇠약해졌지만, 백신 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말 장염증상으로 입원했고 패혈성쇼크가 진행되어 심폐소생술, 기도관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 오랜기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정민 님의 수입이라고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두 부부가 운영해왔던 토마토 농장의 소득이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병원생활로 인해 올 해는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암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중학생인 둘째 자녀는 학원수업을 수강하고 싶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의 문턱조차 가까이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오정민(가명, 만58세)

모금기간: 2024. 4. 1. ~ 4. 30. (1개월)

목표금액: 350만원(의료비, 자녀 학원비)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입금방법: 후원 000(후원자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3098

※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정보

춘천시 봄내PC 나눔사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정보취약계층(개인, 단체)
나눔수량: 봄내PC 100대(2019년 이전 구입제품)
신청기간: 4.11.(목)~4.25.(목) *토·일요일 제외
※ 선정 개별(문자) 안내: 5.3.(금) 17:00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정보통신과), 전자우편(ccinfo@korea.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신청기간 중) 참조
문의: 시 정보통신과 ☎250-3462 또는 307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지원요건
①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청일 기준 18~45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시 7층 공동주택과 방문신청(본인 직접신청 원칙)
문의: 시 공동주택과 ☎250-4408

관내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을 위한 휴장 안내

휴장기간: 3.18.~5. 31. (6월초 개장)
* 잔디상태 및 개선 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시설: 소양강(동면)파크골프장, 서면파크골프장
휴장사유: 시설개선공사, 잔디보식 및 활착 안정기간 소요
문의: 소양강파크골프장 ☎240-7150, 서면파크골프장 ☎240-1760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신청기간: 3. 11. ~ 4. 21. [42일간]
신청대상: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주민생활밀접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단,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에 따른 의무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전신문고 앱(신고 메뉴)
선정방법: 시설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선정(선정결과 개별통보)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문의: 시 재난안전담당관 ☎250-3744

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4월 문화행사 운영

1. 조창호 감독과 함께하는 <도서관 영화 제작소>

기간: 4월 ~ 6월
시작일: 4. 2. (화)
일시: 매주 화, 목 14:00~18:00
내용: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 강의, 시나리오 작성, 단편 영화 촬영 및 시사회

2. '도서관 주간' 특별행사

기간: 4. 12. ~ 4. 16
문의: ☎245-5762

운영 프로그램:

보자기아트로 만나는 꽃 매듭 포장법(4.12. 10:00~12:00 / 성인 대상)
'풀멍'하는 도서관: 집에서 키우는 식물 알아보기 (4. 13. 10:00~12:00 / 초등4~6학년 대상)
온 가족을 위한 벌룬 미술(4. 13. 14:00~15:00 / 전연령 대상)
'풀멍'하는 도서관: 공기정화식물, 분갈이 등(4. 16. 10:00~12:00 성인 대상)

춘천시립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접수: 도서관 누리집 → 독서문화행사 → 문화행사 신청
문의: 시립도서관 ☎245-5063, 5138

문화행사 프로그램:

- 노래로 배우는 영어(유아/4.6.(토), 4.20.(토)/10시~11시)
- 유아 놀이 체육(유아/4.7(일), 4.21.(일)/10시~11시)
- 동화놀이터(유아/4월 매주(월,화)/11시~12시)
- 인문학 강좌(신화의 식탁 위로)(성인/4월 매주(목)/19시~21시)
- 4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콘서트(전연령/4.20.(토)/14시~15시)
- 부모성장교육(쉽게 하는 육아의 비밀)(성인/4.27.(토)/14시~16시)

소양도서관 4월 문화행사 운영

문의: 소양도서관 ☎245-5145~5146

1. <소양토요시네마>

상영시간: 매주 토요일 15:00 ~
운영방법: 당일 현장 참여(선착순 24명), 5세 미만 보호자 동반 입장

영화 프로그램:

- 켈스의 비밀(4.6./78분) 몬스터 호텔(4.13./88분)
- 멍둥이(4.20./112분) 슈퍼키드 헤일리(4.27./76분)

2. 낭만을 선물하는 <추억의 소양극장>

상영시간: 매주 일요일 14:00 ~
내용: 추억의 고전영화 상영, 당일 현장 참여(입장순 24명)

영화 프로그램:

- 혈맥(4.7./83분) 그대와 영원히(4.14./110분)
- 안개(4.21./79분) 삼포가는 길(4.28./101분)

3. 단체 대상 문화행사

신청기간: 3. 21.(목) 10:00 ~ 접수순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신청공간 → 견학신청

프로그램:

- 아장아장 책나들이 가는날(화~금 11:00~12:00 / 유아대상)
- 아장아장 도서관영화나들이(화~금 10:30~11:50 / 유아대상)
- 단체영화상영(1부 화~금 13:00~15:30, 2부 15:30~17:50 / 일반단체)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안내

기간: 4~12월 대상: 임산부, 유아, 어린이, 장애인
배부처: 춘천시립공공도서관 8개소

배부방법

- 도서관 방문 → 대출회원증 확인 → 배부
- 임산부, 장애인: 도서관 방문 또는 택배 서비스 (시립도서관 누리집 > 북스타트 택배 서비스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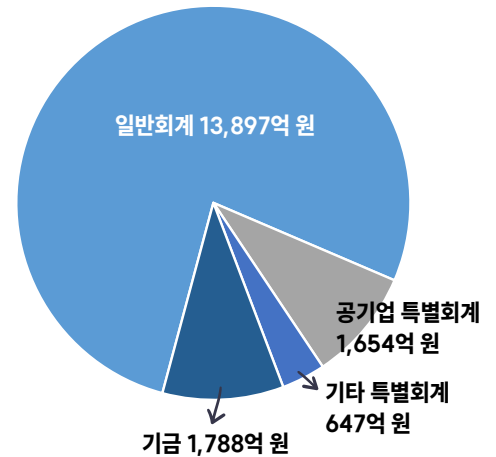
문의: 시립도서관 ☎245-5119

꾸러미 내용(대상/꾸러미):

- 임산부 부모책 2권 + 유아 1단계 그림책 2권(0~5세 뇌가 쑥쑥 자라는 놀이 육아 /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 0~18개월 그림책 2권(열매가 톱! / 찾았다! 우리 이야기)
- 19~35개월 그림책 2권(그래! 이 닥지 말자! / 훌훌 도르르 마법 병원)
- 36~취학 전 그림책 2권(내 걱정은 하지마! / 눈물 문어)
- 초등학생 그림책 2권(백만 마리 원숭이 /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

2024년 춘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요사항

예산규모:
예산규모(통합회계)
1조7,986억



주요 재정지표:

재정자립도 18.91% / 재정자주도 57.92%
지방보조금비율 2.81% / 자체사업비율 28.87%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춘천시살림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 기획예산과 ☎250-3377

도서관

신사우도서관 5월 문화행사 접수

신청기간: 4. 16.(화) 10:00 ~ 접수순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신청
문의: ☎245-513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신나는 동화나라(유아 단체 / 수, 금 11:00~12:00)
어린이 공예수업(초등 3~6학년 / 5월 매주 토요일 14:00~16:00)
스토리아트(성인 / 5월 매주 금요일 10:00~12:00)

동내도서관 휴관 안내

휴관일자: 4~ 12월(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관사유: 지열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불가
문의: ☎245-5126

모집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문의: ☎241-0756

프로그램 소개:

[부모교육] 우리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 4. 4.(목) 10:00~12:30 / 10명)
[부모교육] 마음을 이어주는 그림책 읽기 (영어)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 4. 25.(목) 10:00~13:00 / 10명)
[부모교육] 가정 내 양육환경점검 부모교육(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
4. 17.(수) 10:00~12:00(일정 변경 가능) / 10명)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관리 부모교육(3모듈)
(관내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 1회기 4. 19.(금) 10:00~12:00,
2회기 4. 26.(금) 10:00~12:00, 3회기 5. 2.(목) 10:00~12:00 / 8명)
[부모자녀프로그램] 꼬물 예술놀이-뮤직아이
(관내 6~25개월 자녀와 양육자 / 4. 13. (토) 10:00~12:20 / 10명)
[부모자녀프로그램] 오감놀이 특강-트롤(테마퍼포먼스)
(관내 20~21년생 자녀와 양육자 / 4. 20. (토) 14:00~16:20 / 10명)

춘천시근화꿈자람나눔터 신규 개소 및 아동 모집 안내

센터개소: 2024.3월 ※아동 돌봄: '24.3.18(월) 부터
위치: 당간지주길 74번길 11-14 정원: 30명
이용대상: 맞벌이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
이용시간: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8:30~19:00
모집기간: 2.26 ~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근화꿈자람나눔터 ☎010-4643-2384

춘천노동교육 법률상담소 무료상담(연중) 운영사업

대상: 춘천시민 상담진행: 공인노무사 김인
내용: 근로기준법, 성희롱, 괴롭힘 예방 무료교육 및 상담
세부사항: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고용보험, 휴직 휴가, 근로
계약,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상담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7:30
주소: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문의: 한국노총춘천영서지역지부 노동교육법률상담소
☎242-7576, 243-7576

춘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
세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선착순)
(지역특화 청년? 관내 거주 만 35~39세, 경력단절여성, 생계형 아르바
이트 청년, 폐업 및 매출 저조 자영업 청년, 졸업 유예 및 장기휴학생 등)
신청제외: 6개월 이내 의무복무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 재학생 등
지원내용: 무료 맞춤교육&자격증 취득과정, 최대 300만원 지급!
-교육: MBTI, 요리/제빵, 회화, 이력서, 면접실습, 가족공예, 퍼스널컬러 등
-자격증과정: 바리스타, 토익, 펫푸드, GTQ
참여유형:
-도전: 5주 이상, 40시간 이상 / 50만원
-도전+ 중기: 15주 이상, 120시간 이상 / 최대 170만원
-도전+ 장기: 25주 이상, 200시간 이상 /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litt.ly/hopereborn_cc
문의: 희망리본 춘천센터 ☎818-9288



춘천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한림) 학교박청소년 상시 모집

프로그램: 검정고시·수능, 진로준비, 문화체험, 심리상담, 학습상담 등
대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위치: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15202호(한림대정문 우리은행 옆)
이용방법: 전화신청 후 센터 방문하여 등록
문의: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256-6214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저소득층 등
지원금액: 1가구당 60만원 이내 신청기간: 4~10월
지원내용
- 체납공과금 및 월세비: 2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가능
-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건강보험료 지원은 6개월이상 체납 시 가능
※ 간병비는 지원대상 제외
-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개보수 등
- 난방비 및 생필품 구입 등
문의: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262-599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연중 수시 모집(무료)

대상: 만 15 ~69세 구직자

- 1유형
1)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가족수당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2)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1)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2)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
1)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2)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연계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256-8819

(재)춘천지혜의숲 노후준비 아카데미

1. '숲 헬스 트레이닝' 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대상: 50세 이상 춘천시민 15명
신청기간: 3.25(금) ~ 4.8(월) / 선착순
신청방법: (재)춘천지혜의숲 홈페이지 참고(www.cc5070.or.kr)
교육내용: 의암호 호수길 산책과 봉의산 산림치유 교육을 통해 신중년 및 노인세대의 운동 능력 향상 및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설계 교육
강의일정: 4월 16일(화) ~ 6월 11일(화) 매주 화, 목요일 (16회기): 과목별 시간 상이 ※ ①, ② 과목 모두 수강 가능하신 분들 모집
※ 강의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1만원 문의: ☎070-4240-4199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기자 모집 안내

모집대상: 60세 이상 춘천시민
신청기간: 4. 1~ 4. 3. 면접심사: 4. 5. *일시 추후 개별 안내
신청방법: 직접 방문(시청길 32, 해찬빌딩 3층)
※ 참여제외 요건 및 지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춘천지혜의숲 홈페이지 참고 / 대기자는 기존 참여자 결원 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합격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재)춘천지혜의숲 ☎252-5070

사업내용:

기초학습지원사업단(기초학습지원, 생활지도 및 정서지원, 교원자격증 필 / 10명), 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단(스마트폰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무 및 미디어 분야 교육 등 / 3명), 장애인지원사업단(장애 아동 학습 활동 지원 및 학생활동 보조 지원 사회복지사 or 요양보호사 / 10명), 지역돌봄지원사업단(초등학교 방과후활동 지원 / 10명), 안전관리사업단(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교통 약자 안내(환승센터) / 10명), 마을돌봄사업단(취약계층 발굴 및 마을돌봄 활동 지원, 건강한 마을만들기 활동(경로당) / 5명)

3. '춘천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설계 상담 이용 안내

대상: 노후설계 상담을 희망하는 춘천시민
내용: -4대영역 진단(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 노후준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소개, 구인 / 구직 상담, 취업지원 등
문의: (재)춘천지혜의숲 ☎252-5060

모집

20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명: 우리 이야기, 시니어 극장
 사업기간: 4. 20. ~ 8. 31. (매주 토 10시~13시)
 사업대상: 춘천에 사는 65세 이상 시니어 15명
 참가비: 전액 무료
 사업장소: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옛 춘천여고)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의(접수처): 아트 컴퍼니 손 ☎010-5371-7106

2024년 '동화읽는어른' 신입회원 모집 강연

모집대상: 어린이 책에 관심있는 어른
 모집기간: ~ 4. 15.(월)까지
 ※ 신청은 전화 및 큐알코드 가능 (붙임파일)
 문의 및 신청: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춘천지회 ☎010-4012-8690,
 ☎010-8664-3568



강연내용(강연/일정 /장소):

‘엄마마중’, ‘들꽃아이’, ‘메아리’ 등 그림 속 자연의 감정에 공감하다
 (4. 16, 화 10:00~12:00 / 작가 김동성 / 춘천시립도서관 2층 시청각실)
 “어린이 문학의 기적” 어린이 문학과 함께 온 일상의 변화
 (4. 23, 화 10:00~12:00 / 강사 강경희 / 춘천시립도서관 2층 문화교실 1)
 “어린이 책과 함께 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4. 30, 화 /
 10:00~12:00 / 강원지부장 장인경 / 춘천시립도서관 2층 문화교실 1)

CS LEADERS(관리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CS 교육, 고객만족 실무 컴퓨터 활용 교육, 고객 만족 업무의 현장이해 등
 모집기간: ~ 4.5.(금) 취업코칭:4.11.(목)~4.12.(금)
 교육기간:4.15.(월)~5.31.(금)
 (2개월, 31일, 총124시간) 09:00~13:00
 문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외솔길 25)
 ☎243-6474, 070-4048-6958

사회적경제-ESG로드 참가자 모집

대상: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춘천시민(단체) 누구나
 신청기간: 3~11월(선착순 모집)
 운영규모: 10회차 운영(회차별 10~20명)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상품 체험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910-0325

“나도 화가다” 무료 교육프로그램 시즌 1기 모집

일정: 4~6월
 장소: 지하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마 20호
 대상: 미술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시민, 학생
강좌 프로그램
 어반스케치 그림여행(매주 수요일 18:00~20:00)
 만화창작스튜디오(매주 목요일 18:00~20:00)
 FUN한아크릴ART(일러스트+팝아트)(매주 일요일 13:00~15:00)
 문의: kitschmam@naver.com 메일로 신청
 미술과 사람들 ☎010-3436-3872

청년농업인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6차산업)토마토로 본 미래농업
 모집대상: 청년농업인(만18~39세)
 모집인원: 기수별 7명
 교육기간:2기) 4.19.(금)~28.(일)/(10일, 100시간)
 교육비: 국비지원(자부담금 20%)
 특혜:
 청년농업인 정착자금 지원, 후계농업인 선정에 교육이수 적용
 * 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등록(전화 및 방문 신청) 요함
 문의: 헬로토마토교육농장
 ☎0507-1417-7119, 010-5361-7119

2024년도 성년식 대상자 모집

행사명: 성년례
일정: 5. 18.(토) 11:00, 춘천향교
대상: 만 19세 (대학생 1학년)
※ 춘천지역 거주에 한함 (학부모 동참)
모집인원: 30명 (남-15명, 여-15명)
모집기간: 4. 30일까지 (선착순마감)
문의: 춘천향교 ☎254-3044

효동행사업-화기애애 참여자 모집(무료)

기간: 3월~10월
대상: 춘천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강좌 프로그램
노래교실(30명) / 매주 수요일 9:30~11:00
바둑교실(16명) / 매주 목요일 9:30~11:00
신청방법: 전화 신청, 복지관 내방(방문하여 신청)
장소: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근화길 95)
문의: ☎254-7244

4월 시민역사학교'히스토리야'

주최: (사)춘천의병마을 주관: 시민역사학교 운영위원회
문의: ☎263-8903 / 010-9287-8906

1. 역사강좌

일시: 4.25.(목), 18:30
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강의명: 러시아지역 항일독립운동과 의암 유인석
강사: 박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2. 현장답사

일정: 4.16.(화) 참가비: 3만원
출발시간 및 장소: 07:30, 호반체육관
주요답사지: 내촌 물걸리 삼층석탑 및 사지, 기미만세공원, 팔렬사,
서석 풍암리동학혁명군전적지,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

2024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피보험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4. 2. 10. ~ 2025. 2. 9.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1644-9666(내선 1번)
문의: 시 재난안전담당관 ☎250-3724

보장항목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 1천5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1천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1천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개 물림사고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 10만원
사회재난사망 / 1천5백만원 상해사망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 100만원

신사우동 주민자치센터 야외운동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생활체조, 에어로빅 등
운영기간: 4~10월
시간: 월, 수, 금 오전 6:30~8:00
장소: 신사우동 청류마당(우두동766-3)
수강료: 무료
문의: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245-5859
※ 계절적 요인에 따라 기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택견' 춘천시민 무료교실(12기)

장소: 공지천 구름다리 건너 메타세퀘이아 나무 공원
내용: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무예 택견
시간: 매주 화, 금요일(10:30 ~ 11:30)
기간: 4.2.~10.29.
강사: 김동규 (강원택견문화원장, 택견국가전수자)
신청: ☎242-9191 / 010-7180-8592

모집

2024 찾아가는 춘천스튜디오 모집(무료)

모집대상: 성인 20명 이상의 춘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동아리

강좌기간: 4~10월(평일 1시간~2시간)

모집기간: 3. 18.(월) ~ 선착순 마감 시까지

강좌 프로그램

- 나무의 시간과 춘천 - 사진으로 보는 도시의 기억
- 봄내의 수상한 생태계 - 춘천의 숨겨진 비경과 유래
- 호반의 도시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 겨울연가에서 소년시대까지 K-영상과 춘천
- 김유정과 실레마을: 그의 마음 둔 곳 어디인가
- 춘천의 또 다른 이름, 막국수와 닭갈비 스토리
- 춘천이 K-pop을 만났을 때 - 춘천 축제를 즐기는 방법



신청방법: 춘천문화원 홈페이지(희망 강좌 3지망 내 1배정)

문의: 춘천문화원 ☎261-5105 ※ 자세한 내용은 QR 참조

성인문해교육 <봄내배움터> 학습자 모집(무료)

대상: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 한글 공부하고 싶은 분

인원: 약간명, 신규 학습자 연중 모집

운영시간: 초급 훈민반(화, 목 10:00~12:00) / 중급 정음반(월, 수 10:00~12:00)/생활문해반(금 10:00~12:00)

운영 프로그램: 교육부 발행 성인문해 교과서 수업, 생활 문해 수업

장소: 금강로 26. 3층 봄내배움터

(인성병원 건너편 소양로우체국 아래 출고 방향)

문의: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춘천지부 ☎244-3009, 010-4911-9819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신청기간: 3. 11.(월) ~ 상시모집

사업내용:

- 학습근로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현장에 빠른 적응과 국가자격 취득, 상위학교 진학
- 참여기업은 젊은 인재 선점, 장기근속 유도, 5,000만원(학습근로자 5명 기준)내외의 정부지원금과 병역특례, 조달청 지정 가점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등 기타 훈련비(도제식현장교육 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훈련장려금 지원 등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248-8521, 248-8503

제47회 춘천전국사진공모전

출품자격: 전국사진애호가 및 18세 이상(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작품내용: 자유작(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inch)*14(inch) (장정불요)

출품료: 1인당 20,000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요령: 작품뒷면에 화제,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한 출품표를 부착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

접수기간: 4.1.~4.25.(도착분)

접수처: (24264)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71 도로번1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

심사일시: 4. 29.(예정) 전시기간: 6. 1.~6. 5.(예정)

심사결과발표: 4.30.(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춘천지부다음카페

cafe.daum.net/paskcc

주최 및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춘천지부

문의: 한국사진작가협회 ☎242-3666, 010-5492-0337

한림대학교 진로취업

Open 캠퍼스 수강 안내(온라인 동영상 강좌, 무료)

교육대상: 강원지역 청년 및 지역 주민

교육내용: 진로강좌, 직무강좌, 취업 및 해외취업강좌, 비즈니스강좌, NCS강좌, IT 및 직무 자격증 취득 대비 강좌

수강방법: [한림 진로취업 Open 캠퍼스] 회원가입 후 수강

수강기간: ~ 2025.3.1.(토)까지, 상시 수강

수강 홈페이지: hallym.joeuniledu.co.kr

문의: 한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48-1081

<춘천생활사 기증 릴레이> 옛날 가게부를 기증해주세요

춘천문화원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증 물건은 <가게부>입니다. 옛날 가게부는 춘천의 가정경제를 기록한 소중한 역사자료로,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뜻깊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춘천문화원 ☎261-5105

생활 정보

한국전력공사 시행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12. 13.까지 (예산 소진시 종료)

사업내용

- 1) 고효율 LED: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LED 교체 지원
 - 2)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 3) 고효율 향온합습기: 고효율 향온합습기 설치(신품) 지원
 - 4)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기기 설치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사이버 지점 참조(한전 홈페이지-한전ON → 효율향상 수요관리 → 고효율 기기보급)

문의: 한전 강원본부 ☎259-2355, 2442

2024년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교육 안내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일시: 4.11.(목) 14:00~16:00

장소: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5층 세미나실
(중앙로 131 춘천시보건소 별관)

교육내용: 생애주기별 우울에 대한 증상과 대처

강사: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익

신청방법: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chmhc.org) →

상담 및 참여 → 교육/행사신청

문의: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행사

2024 춘천 부귀리 벚꽃잔치 '설레나 봄!'

일시: 4. 6.(토)~4.14.(일)

개막식: 4. 11.(목요일 오후1시)

장소: 북산면 부귀리 물안골 축제장

행사내용:

개막축하공연, 사진전, 토속 떡메치기, 전통전 및 순두부 만들기 등

주최: 부귀리개발위원회

후원: 춘천시, 북산면사무소, 신북농협, K water, 이장단협의회

문의: 북산면 부귀리 경로당 ☎010-3378-8896,

부귀리개발위원회 ☎010-5379-6749

제40회 의암제 개최 안내

일시: 4.12.(금) 9:50~12:00 참여대상: 시민 누구나

장소: 의암류인석기념관(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행사내용: 식전행사, 의암제례, 제25회 의암대상 시상식 등

주최: 춘천문화원 주관: 춘천문화원, 춘천향교

후원: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문의: 의암류인석기념관 ☎264-3980

제17회 동내면 민민의 날 화합 큰잔치

일정: 4. 13.(토) 10:00, 동내초등학교 운동장 ※우천시 동내초교 체육관

내용: 개회식, 문화·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주민들과 다채로운 이벤트

문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250-3605

조운워크 북 '우리 같이 노랑' 문화행사 안내

일시: 4. 20.(토) ~ 21.(일) / 12:00~17:00

장소: 춘천시청 호반광장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내용: 공연·체험·포토존·이벤트 등

문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50-4938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기간: 4. 1. ~ 4. 30.

대상: 춘천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1. 모바일 앱 워크온(WalkOn) 설치
2. 챌린지 '참여하기' 누르고 지정 경로 걷기
3. 챌린지 완주 후 '응모하기' 누르기

걷기코스: 홈플러스-치매안심센터-홈플러스(목표: 80% 이상 걷기)

상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5천원, 800명 추첨 지급)

문의: 치매안심센터 ☎250-4004

* 평일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셔서 무료로 기억력 검사 받으시고 소정의 상품 받아주세요! (60세이상)

독자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 코너가 좋아요

시목들 코너는 춘천시민들의 봄내 소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네요. 저마다 마음을 다잡는 공간에서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외치는 시민의 사연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봄내 소식지 정말 멋집니다.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 김기원



춘천시향에 가는 기대가 큼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데 시립합창단에 최상운 상임지휘자 위촉 기사를 읽고 반가웠습니다. 춘천의 춘하추동을 음악에 담아 시민을 위로해 줄 멋진 하모니를 기대합니다. 계절별로 색다른 화음을 들려 줄 거라는 인터뷰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합창의 화음으로 맑게 채색될 춘천을 만나러 공연장으로 가 보고요.

- 임정화

미래 주역에게 춘천을 알리는 마을 교과서

얼마 전 딸의 교과서를 보니 춘천을 상세하게 소개해 준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애郷심을 심어주는 프로젝트 덕분이었네요. 무심코 지나쳤던 춘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합니다.

- 유재욱



봄솔랭가이드를 보며 청춘을 떠올리다

춘천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춘천을 떠나 있지만 '봄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봄내는 청춘의 봄내가 느껴집니다. 매달 색다른 표지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춘천이 그려집니다. 3월 호의 봄솔랭 가이드는 봄의 춘천, 내 인생의 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봄에는 춘천에 가서, 잊고 지낸 나의 청춘을 찾아보렵니다.

- 김기태



매달 받아보는 봄내 감사해요

타지에서 이사온 지 이제 3년차입니다. 다른 곳에 살았을 때에는 소식지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춘천 와서 우연히 보게된 소식지를 보고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 받고 있어요. 특히 알림마당에 나오는 소식은 동그라미까지 치며 확인 한답니다. 봄내 소식지를 만드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박동숙

내가 버린 쓰레기 얼마나 될까 기사를 읽고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 고개를 들지 못했네요. 쇼핑할 때 과일 조금 사고 생각없이 비닐팩을 뜯어담아 왔던 일, 편의점에서 우유한통 사고 "비닐 주세요" 했던 일. 앞으로 꼭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실천해요.

- 윤현숙



398호 '봄식당' 삼행시 당첨작

봄소식을 전하듯이 재잘대는 도랑 물소리에
식사를 준비하던 손길이 자연스레 멈추었네
당신이 오는 듯한 반가움에 한참을 음악처럼
들었어

- 김상민

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식었던 대지에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면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스며들기를!

- 정소미

봄내 잡지를 읽고나서

식상했던 일상이 재밌어졌다.

당연했던 내 고향이 봄처럼 아름다워졌다.

- 정지민


398호 독자 삼행시 당첨자

강효덕, 김남훈, 김복동, 김상민, 김은혜, 남궁경, 남길현, 박유경, 박영숙, 유정순, 이예은, 이형근, 임석기, 장석근, 정소미, 정지민, 정진아, 최기호, 허미영, 현규진


다음 독자 삼행시 주제는


반려견 입니다.


이달의 춘천시 통계 (2024.2월 말 기준)

 인구 290,440명(-27)

 가구 135,843세대(+403)

 출생아 130명

 65세 이상 59,164명(+286)

 자동차 150,242대(+225)

CARTOON REVIEW

만화로 보는 봄내리뷰 강원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호 봄내소식지를 보고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 2학년 박희원



독자 참여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소통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 봄내소식지 참여 안내
삼행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본인 명의) 반드시 기재
독자와함께, 봄내한컷 3만원, 우리가족 이야기 5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주소 반드시 기재
- 봄내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 이벤트 안내
봄내퀴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정답자 중 100명 추첨)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What 매니페스토란?

이탈리아로 가다!!

내 이름은 매니페스토(manifesto).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이지.

선거 매니페스토

정당 및 후보자가 공약한 정책을 선거기간 중
국민에게 공표(정책선거).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감시·검증.



마니페투스(manifestus)

어원은 라틴어!!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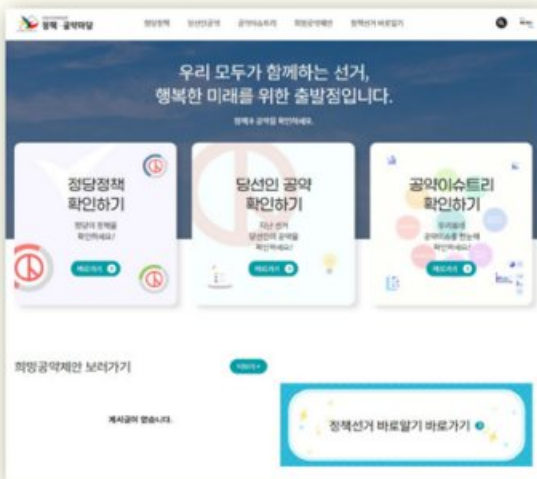
주요 사례

- 영국: 매니페스토 운동을 최초로 시작
- 일본: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50여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
- 미국: 정당대회(코커스), 인물과 당의 정책을 동시 선택

How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정책·공약마당>

정당의 정책 및 당선인들의 공약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policy.nec.go.kr/>



<공약이슈트리>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동네
이슈키워드를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0
선거법 문의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